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신앙 쇄신운동 - 하느님 백성답게 모두 제자리로 -

한국평협에서 이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2020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7일)을 경축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본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취지로 **‘제자리 찾기’** 신앙 쇄신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요청하는 이번 운동에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동참해주시길 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태 12,50)

희년 실천 덕목

신심·영성

1. 성무일도, 삼종기도, 가정기도 바치기
2. 강론, 미사전례 준비, 미사참례 잘 하기
3. 복음 말씀 맛들이기(읽고, 쓰기)
4. 서로 기도하고 섬기며 칭찬하기
5. 주어진 소임과 봉사에 기쁘게 협력하기

기후·환경

1. 재활용품 분리배출 잘하기
2.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3. 친환경 세제 이용하기
4.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 걷기
5. 아나바다 생활과 미니멀 라이프 지향하기

가정·생명

1. 모든 생명(태아) 존중하기
2.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과 인사하기
3. 미혼모 미혼부 격려하고 돕기
4. 노약자와 장애인 우선 배려하기
5. 음주운전, 과속, 무단횡단 않기

윤리규범

1. 자기 계발을 통해 자존감 살리기
2. 성·사랑·혼인에 대한 바른 윤리관 지니기
3. 게임, 흡연, 음주 절제하고 양서 읽기
4. 스마트폰 등 소셜미디어 선용하기
5. 서로 소통하고 관심 갖기

정의·평화

1. 험담하지 않고 경청하기
2. 공동선과 연대성 증진하기
3. 어려운 이웃 찾아보고 애덕 실천하기
4. 불목한 이와 화해하고 용서하기
5. 이주민, 외국인 차별하지 않기



김대건 신부 캐릭터
- 솔피 성지 제공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20년 겨울

평신도



·인사 인사말

·소식 행사 일정

·특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수도회 탐방

·나눔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나의 신앙 선조

·이콘 성모님의 이콘

·순례 성지순례

·이야기 직장사목팀
주보성인과 나

·배움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동정 교구평협·회원단체



2020년 겨울
계간 70호

평신도

CONTENTS

- 인사

02 인사말 / 손병선 회장

- 소식

04 12월-21년 2월 행사 일정 / 염지유

- 특집

0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13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 만남

25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32 수도회 탐방 / 서희정

- 나눔

37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3 / 송란희
41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4 / 김주완
46 나의 신앙 선조 / 이춘만

- 이콘

49 성모님의 이콘 II / 장금선

- 순례

52 성지순례 : 이스탄불 / 김원창

- 이야기

58 직장사목팀 / 최태교
63 주보성인과 나 / 현석영

- 배움

65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홍희기
69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박혜원
72 평신도 양서 / 김선동

- 동정

74 교구평협·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 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위원 김병호 토마스 아퀴나스,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송란희 가밀라, 최태교 안드레아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이지영 로사리아 작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인사말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제자리를 찾읍시다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교우 여러분

오늘은 신세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우리 평신도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속 안에서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 사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밝히는 빛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명을 지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종종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1코린 1,24)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만 하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의에 차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방식의 친교와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들의 성사 생활과 공동체 활동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언어와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넘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고립적이지 않으며, 인류와 자연을 포함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공동체적 운명을 지닌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모두가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이 엄중한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값진 유산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가톨릭 사회교리가 그것입니다. 인간 존엄성, 공동성, 연대성, 보조성,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같은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들은 오늘날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한 길잡이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온갖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형제애와 사회적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면서도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고 마침내 목숨을 바쳐 신앙의 증인이 된 순교 선조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잡이가 됩니

다. 특히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가정자 최양업 신부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첫 한국인 사제 성 김대건 신부님은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불굴의 신앙과 한결같은 희망과 희생적 사랑으로 복음적 덕행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맘의 순교자인 가정자 최양업 신부님은 혼신의 사랑과 열정으로 양들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마침내 길 위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야기된 엄중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면서 가톨릭 사회교리를 비롯한 교회 가르침을 실천하고 신앙 선조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 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정신을 살려 본래 모습대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취지의 ‘제자리 찾기’ 희년 실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함께해주실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 세속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린 우리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깊이 되새기고 그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말은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를 재편집하였습니다.

특집 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 ●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회년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회년 기념행사를 승인하고 준비 위원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를 중심으로 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자들과 실무자 연석회의를 4차례 걸쳐 진행하여 기념행사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낮 12시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한국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회년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회년 폐막 미사인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 1년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특집에서는 회년과 관련되어 평신도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준비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재구성하여 보았다.(편집자 주) (사진제공: 김영훈 바오로)

● ● ●



교구평협·회원단체 2020년 12월~2021년 2월 행사 일정

교구평협 행사 일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54회 정기총회

- 일시: 2021년 2월 6일(토)
- 장소: 서울 가톨릭회관 1층 예정
- 문의: 02-757-7851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51회 정기총회

- 일시: 2021년 1월 16일(토)
- 장소: 서울 가톨릭회관 1층 예정
- 문의: 02-777-2013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정기총회

- 일시: 2021년 1월 30일(토)~31일(일)
- 장소: 배론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21년 의정부평협 총회

- 일시: 2021년 2월 6일(토) 14시
- 장소: 주교좌의정부성당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가톨릭박물관 준공 기념 전시회

-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
- 일시: 11월 28일(토)~2021년 1월 30일(토)
- 장소: 광주 가톨릭박물관
- 주관: 광주평협, 순교자현양회
- 문의: 062-236-3004

회원단체 행사 일정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2021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총회

- 일시: 2021년 1월 22일(금)~23일(토)
- 장소: 서울 성 앵베르센터

한국가톨릭의사협회

▶ 교구별 회장단 연례회의(예정)

- 일시: 12월 5일(토)~6일(일)
- 장소: 서울성모병원

일정은 주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회년의 주제와 행사: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주교회의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회년 주제를 “당신이 천주교인이오?”(제안자: 김일회 빈첸시오 신부, 인천교구)로 정하였다. 1846년 8월 26일 옥중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페레올

주교님께 쓴 편지 내용 가운데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라고 심문하기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요.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관장의 질문은 김대건 신부님 한 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천주교인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이에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질문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새겨 천주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주제로 선정하였다.

회년 개막 미사의 전례는 전례력 규범에 따라 대림 제1주일 전례에 따라야 하기에, 보편 지향 기도를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협의회에서 마련하고, 영성체 후 기도 다음에 회년 선포식을 한 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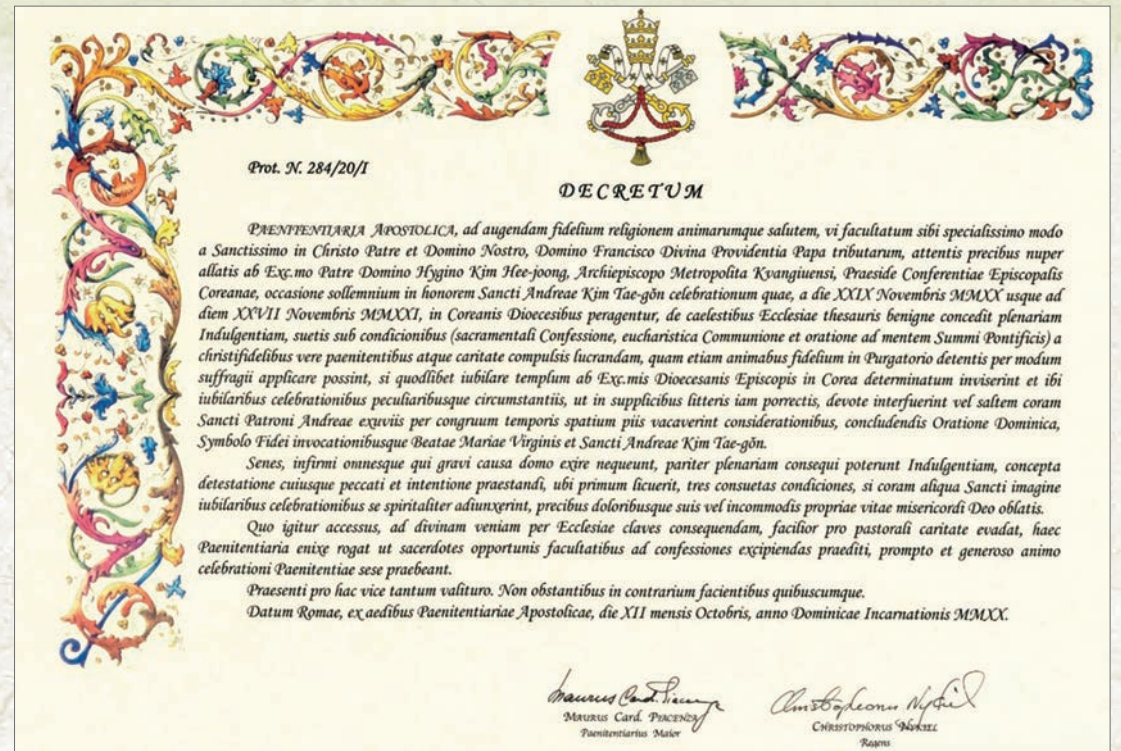
성모병원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3D 흉상 제막식과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교황청 내사원에서 보내온 전대사 수여 교령의 전대사 조건 등과 회년 기도문(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

년 기념 기도, 9일 기도, 회년 전대사 수여 순례 성당과 성지에서 바치는 기도)을 발표하였으며,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회년 기도문, 회년 전대사를 받기 위하여 신자들이 방문할 성지와 순례지(교구장 주교 지정 성지, 김대건 신부님 관련 성지, 김대건 신부님을 주보로 모신 성당), 기념행사 등을 소개하는 『회년살이 안내』책자도 제작하여 배포 중이다.

교황청에서는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통하여, 교황 성하와 국무원 총리, 인류복음화성 장관의 회년 메시지를 보내왔다. 교구 차원으로는, 2021년 6월 11일(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에 회년 사제대회와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2021년 8월 21일, 솔뫼 성지), 회년 폐막 미사(2021년 11월 27일, 각 교구 주교좌 성당)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솔뫼 성지 정문



▲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전대사 교령(발췌) ■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누워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 본 앞에서 회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회년 전대사

교황청 내사원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전대사 수여 교령(2종)을 보내왔고,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에 요청하여 이 교령의 우리말 번역문을 전달받았다.

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대사 수여 순

례 성지와 성당과 관련하여, 교구장 주교 지정 성지와 성당을 반영한 회년 전대사 수여 성지와 성당의 목록이 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2020년 10월 15일)에 안전으로 상정되어 승인을 받았다.

3. 회년 기도문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감수를 받은 회년 기도문(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기도, 김대건 신부님 순교의 길을 따라 걷는 9일 기도, 회년 전대사 수여 순례 성지와 성당에서 바치는 기도)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0년 9월 14일)를 거쳐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기도문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
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
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
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
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
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

(2) 김대건 신부님 순교의 길을 따라 걷는 9일 기도 지향

첫째 날 창조 질서의 회복	하느님께서 지어 내신 이 땅의 자연과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이 지극한 정 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창조 질 서의 회복과 보존을 위하여 기 도하며, 이를 우리 삶 안에서 실 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한다.	다섯째 날 가정의 성화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사 대째 신앙을 이어 온 성가정의 열매 이시다. 우리 가정의 화목과 성 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 치기로 결심하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신 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 총을 청한다.
둘째 날 화해와 일치의 삶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온 삶을 바치신 분이시다. 신부님의 삶 의 모범을 따라, 복음화와 민족 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한마 음으로 더욱 힘껏 노력할 수 있 도록 은총을 청한다.	여섯째 날 이 시대의 청년들	청년 신앙인의 귀감이 되신 김 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기억하면 서, 교회와 겨레의 미래인 청년 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 며, 함께 노력하여 이들이 바라 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은 총을 청한다.
셋째 날 고통받는 교회 돕기	박해받던 한국 교회를 위한 세 계 보편 교회의 기도와 지원으 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로 양성되시고 성품을 받으셨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와 희생으 로,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 는 교회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한다.	일곱째 날 평신도의 성화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삶과 신앙 을 일치시키신 분이시다. 이 모범 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일치 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 이고 일상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한다.
넷째 날 생명 존중의 문화	겨레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 력하신 김대건 신부님처럼, 우 리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문화 전반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며,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한다.	여덟째 날 수도자들의 성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복을 누릴 하느님 나라를 대망 하며 살아가신 김대건 신부님의 모범을 따라 수도자들이 종말론 적 희망의 표지가 되도록 기도 한다.
		아홉째 날 사제들의 성화	김대건 신부님께서 한민족의 첫 번째 사제이심을 기억하면서 사 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 고, 사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노력하도록 은총을 청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하신 성 김대건 신부님 생가



▲ 솔미 성지 14처

4. 교구별 회년 기념행사 예정

(1) 전 신자 신앙대회

대전교구는 회년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일(2021년 8월 21일)에 솔미 성지에서 회년 맞이 전 신자 신앙대회의 개최를 준비 중인데, 일정과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면 교구별 신청자 접수 등의 세부 사항과 각 교구에 보낼 안내문 등을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다.

(2) 교구별 회년 기념 문화 행사

① 기념 메달과 우표 발행(대전교구)

대전교구에서는 회년 기념 메달과 우표 발행을 진행 중으로, 기념 메달은 2020년 11월에, 기념 우표는 2021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② 첫 사목의 날(대전교구)

대전교구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첫 사목지였던 강경 성당 일대를 순례하고,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3) 회년 전대사 수여 순례 성지와 성당에서 바치는 기도 순서

- 1) 성호경
 - 2) 성경 말씀 또는 김대건 신부님 서한 봉독
 - 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탄생 200주년 기념 기도
 - 4) 사도 신경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 5)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를 간청하기
 - 6) 마침 기도
-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③ 회년 특별 기념 전시회(서울대교구)

서울대교구에서는 절두산 순교 성지 내 한국 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서 '성 김대건 신부展'이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를 2020년 11월 28일(토)부터 2021년 11월 27일(토)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④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특집 영화 제작(대전교구)

대전교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영화 제작을 추진 중으로(대전교구 주관, 라파엘픽쳐스 제작),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담은 극장용 영화를 2021년 개봉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⑤ 회년 기념 연극(서울대교구)

서울대교구는 문화홍보국 주관, 가톨릭연극인협회 제작으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잇는 거리극을 2021년 9월 개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⑥ 순례

대전교구에서는 2021년 5월 1일(토) 충남 당진 내포 성지에서 제26차 내포도보성지순례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과 김대건 신부님 치명순교 길의 도보순례를 확산하고자 2020년 11월 29일(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토)까지 '회년愛 동행'이라는 이름의 순례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2021년 9월(예정)에는 '한국-아시아 순례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한국 순례주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교구에서는 '청년 김대건 순례길'을 조성하여, 은이 성지에서 미리내 성지를 잇는 온·오프라인 청년 김대건 길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청년 김대건 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문화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3) 국제 심포지엄과 학술대회

각 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심포지엄과 각종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대전교구는 내포교회사연구소 중심으로 회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2021년 8월 17~19일 솔미 성지, 합덕 성당, 신리 성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솔미 성지 안내도(출처: 솔미 성지 웹)

서울대교구는 2021년 7월 5일(예정)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명례방)에서 '김대건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부제: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 김대건, 땀의 증거자 최양업을 기억하며)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교구는 2021년 10월 28일(목)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회년 기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제로 김대건 신부님의 사목 활동과 함께 모친 고 우르술라와 형제들의 삶과 영성을 조명하고, 성소자 양성을 위해 세 명의 신학생에 대해서도 조망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대교구에서는 학술·장학 사업으로, 성 김대건 신부님 및 순교자 유해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사)김대건 성인 기념 사업회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 솔미 성지 김대건 신부상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신앙 쇄신운동

- 하느님 백성 함께 모두 제자리로 -

한국천주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를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2021년 세계기념인물로 선정하여 더욱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성 김대건 신부님과 가정자 최양업 신부님, 그리고 신앙선조들의 삶과 영성을 본받아 거듭나기 위한 실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 활동이 제한되고 신자들의 신심이 위축됨에 따라 신앙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쇄신과 변화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이 땅에 천주교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한 신앙 선조들의 굳은 신앙심과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하느님뿐만 아니라 인류를 비롯한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로이 하는 한편,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증거하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또한 교회 내적인 신앙 쇄신 운동과 더불어 방향 감각을 잃은 우리 사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사회적 실천 운동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합심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공동체성 회복과 함께 신심·영성, 가정·생명, 정의·평화, 기후·환경, 윤리규범 등 각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실천함으로써 제자리를 찾아 하나가 되는 실천 운동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이가 본연의 자리를 되찾는 ‘제자리 찾기’ 신앙 쇄신 운동을 통해 오늘의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여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길 다짐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위 내용은 한국평협 추계상임위원회의(2020. 11. 20-2020. 11. 21) 파견미사 후 선포식에서 발표한 선포문 전문입니다.

특집 2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한국평협)에서 주최한 가정 선교 체험 공모가 9월 29일에 마감 되었다. 총 93편이 접수되었는데 한 달간의 검토기간을 갖고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평협 하상방에서 3인의 교수 심사위원과 공정성 확인을 위한 위원장 2인이 배석하여 전체적인 심사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이날의 심사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 평신도의 직접 체험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하나하나가 모두 신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상작 중에서 일부를 특집으로 싣는다.(편집자 주)



아빠의 약속

2020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경산성당 교중미사에 12명의 세례식이 있었다. 그중에 검색 양복의 노신사가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어쩌면 이 세상 떠난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

남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빈틈없는 성격과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다 보니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았겠지만, 가정에서는 처자식을 힘들게 했다. 자기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교만함에 처자식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으며 자기 방식대로 자기 틀 안에 식구들이 따라 주기를 원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과도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의견마저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소문난 효자였던 남편은 우리 가정을 뒷전으로 하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니 거기에서 오는 갈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 부부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앉아본 적도 없고 제 손으로 밥 한 숟가락도 떠먹어보지 못한,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중증 뇌성마비를 가진 딸이 있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매일 왕복 한 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니 솔직히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남편은 아픈 자식보다 온통 시어머니 생각이다 보니 남편 눈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봐 드리지 않는다고 목을 조이니 정신

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아픈 아이가 첫애이기도 하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항상 밝고 당당하게 생활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한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신자인 언니와 동생을 따라 성당을 찾아가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도대체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성당에서 하는 교리를 받아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나를 힘들고 슬프게 할 수 있겠지만 주님과 성모님은 나를 힘들고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런데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남편에게 성당에 같이 가자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먼저 딸은 보나, 나는 릿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번은 레지오 활동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었는데 남편은 나를 원망스런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 이유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집을 비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나는 레지오를 6~7개월 동안 쉬어야 했고 남편은 주일미사를 참여하러 가는 나를 보지 않으려 자는 척도 했었다. 남편에게 성당에 나가는 내가 눈엣가시였기 때문이다.

언젠가 심한 말다툼 중에 남편은 화를 삭이질 못하고 방에 있던 십자가와 성모상과 촛대를

마당에 내던져 부수어 버렸다. 그 장면을 목격한 나는 마치 거리에 옷이 벗겨진 채로 서 있는 듯한, 이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었다. 또한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듯했다. 결국 내가 손가락이 뒤로 다 찢혀질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받고 혁혁거리니 남편은 그 모습에 놀라 나를 주물러 주었고 그다음 날 남편은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자신이 부수었던 성물들을 모두 새로 사라며 돈을 주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주일미사 참여나 성지순례를 가게 될 상황이 생기는 등 성당과 관련된 그 모든 활동에 대해 여전히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던 내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딸의 기도와 많은 위로 덕분이었다.

보나는 손을 전혀 쓸 수 없어 문에다 색종이로 묵주를 만들어 눈으로 매일 묵주기도 20단(교황님, 주교님, 이 세상의 모든 사제와 수도자를 위하여 5단, 엄마, 아빠 가족을 위하여

5단, 지인들이 부탁하는 기도 5단,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5단)을 바쳤고 삼종기도와 아침, 저녁기도와 식사 전후기도, 교황님과 주교님 사제와 수도자를 위한 기도, 오후 3시는 자비의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연도, 자신의 선종을 위한 기도 등 엄마의 레지오 협조단원이라 매일 까페나를 모두 외워서 바쳤다. 어릴 때 우리나라 뇌성마비 최고 권위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딸아이가 똑똑하니 잘 키우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딸아이는 뇌성마비이지만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초·중학교는 휠체어로, 고등부는 평상에 누워서 특수학교를 포



강선옥 릿다
대구대교구 경산

함한 12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몸은 심한 장애지만 사람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님께서는 참 공평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보나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지만 그런 와중에 특히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다.

첫째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가자” 하시면 “예” 하는 한마디만 하고 따르겠다는 것.

둘째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낳고 키워 주었지만 천상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꼭 만나러 가는 것.

셋째는 손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는 사소한 것이라도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나에게 “이 세상에 엄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께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라며 과욕은 화를 부른다 했었다. 하느님은 어디든 계신다면서 한 달에 한 번 봉성체 할 때 자주 고해성사를 하려고 하면 보나는 천사니까 성사를 자주 안 봐도 된다는 신부님 말씀에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라고 했었다. 본당 교우들 중에는 보나는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 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고도 했었다.

재작년 종합병원에서 보나가 가족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두 달이라 했지만 1년 6개월을 더 우리 곁에 머물렀다. 작년 가을 병원에 입원한 후 괜찮아서 퇴원했는데, 퇴원한 그날 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9월 11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에 매년 보내주던 꽃바구니 대신 작년에는 자기가 꽃이 되어 하늘나라로 갔다.

평소 고통 없는 하늘나라로 가는 기쁜 날 분홍색 관보를 덮어주고 제대로 향해 갈 때 양쪽에 꽃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보좌신부님과 수녀님 제대회원들의 수고로 해바라기 꽃으로 제대장식과 예쁜 꽃길, 보나 관보 위 예쁜 꽃장식, 촛

대까지 꽃장식이 되어 참 아름다웠다. 장례미사였지만 흡사 딸을 시집보내는 것 같았다.

보나는 살아있을 때 아빠가 성당에 나가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었다. 남편도 이제 보나가 더는 우리와 함께 있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까? “아빠가 뭘 해줄까?”라는 말에 보나는 즉시 “아빠 다음에 천국에서 나를 만나려면 하느님을 믿고 성당에 나가세요.” 딸의 그 말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하여 보나가 죽기 전에 아빠가 성당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42년을 누워서 살면서 짜증 한 번 부리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오직 주님과 성모님을 생각하며 죽음마저 의연하게 받아들인 보나와 또 보나를 떠나보내는 장례미사를 보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살면 되지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다던 남편의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흔들렸으리라 생각한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비신자이면서 성당이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백일 동안 보나를 위한 위령미사에도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 꼬박꼬박 참여하였다.

드디어 딸의 소원대로 작년 11월 17일 입교하여 교리도 열심히 받았으며 부활 때 받을 세례가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져 성모승천대축일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바로 레지오 입단도 했다. 주일미사 때 다른 부부들이 함께 미사 참례하는 것을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주일미사와 평일미사를 남편과 같이 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보나가 살아있었다면 휠체어에 태워 셋이서 미사에 참례한다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이 든다. 보나가 하늘나라로 간 지 어언 1년이 되어 가니까 더욱더 보고 싶어진다.

한번은 딸이 나에게 “엄마가 42년 동안 살아 있어 준 제 천 기저귀를 하나하나 묶어 하늘에서 내려 줄게요. 그걸 잡고 하늘나라로 저를 불러 오세요. 해바라기 꽃밭에서 기다릴게요. 엄마

는 해, 저는 해바라기 꽃. 항상 해바라기 꽃이 해를 쳐다보듯이 엄마와 저는 해바라기 사랑을 하잖아요.”라고 했다.

지금도 보나가 너무 보고 싶어 많이 힘들고 괴로워도 훗날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보나가 두 다리로 걸어서 활짝 웃으며 나를 마중 나오리라 확신하며 위로를 삼는다. 딸이 곁에 있을 때는 내 몸 하나로 돌이켜 사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남편이 레지오 예비단원이라 매일 해야 하는 지시 기도와 성당에 관한 모든 것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삼종기도 아침·저녁기도 식사 전·후기도를 꼭 같이하다 보니 딸이 옆에 있을 때만큼 바쁜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다. 아직은 긴가민가하지만 혼자서도 찾아서 해야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만감이 교차한다. 왜냐하면 남편은 신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믿었기에 그런 남편이 이렇게까지 영세를 받고 성당에 나갈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다. 지인들도 남편이 종교를 가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보나는 오랫동안 봉성체만 했었고 보나의 아픈 상황과 이름만 알 뿐 막상 얼굴을 모르는 교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신자들이 보나를 위해 연도를 바치려 외쳤고, 뿐만 아니라 보나 장례식이 추석 전날이라서 바쁜 와중에도 장례미사에 참석하는 고마운 모습을 보고 딸을 보내는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를 받으며 신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돌아보면 경산성당과 우리 가정은 뜻깊은 일이 많았다. 9년 전에 아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혼인미사를 했고 작년에는 우리 보나의 아름다운 장례미사를 했으며 올해는 남편이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성사가 있었다. 딸의 소원에 못 이겨 “꼭 성당에 가마”라고 약속한

것 때문에 신의 존재를 그렇게 부정하던 남편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남편의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웃음도 전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부부가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지게 된 것 같다.

지난날 딸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그 모든 잘못을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리라 믿는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남편에게 격려와 사랑을 보내며 우리 가족 모두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기원해본다. 주님께 그 모든 것 의탁하오니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믿음상(최우수상)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가슴이 무척이나 두근거리고 설렌다. 아내가 상기된 얼굴로 독서자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니 아내의 긴장이 나에게도 전해진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 이하 누나, 동생들이 아내를 선교 대상으로 삼고 신앙을 권유했었다. 아내는 시댁 식구들의 반강요에 의해 신앙을 받아들였다. 30년도 더 지난 희미한 기억이지만 아내는 어리둥절해하면서 시댁 식구들 손에 이끌려 성당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기에 바빴다. 친구와 술을 좋아하는 난 사흘이 멀다 하고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어리석은 삶에 최선을 다했고 자연스럽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냉담을 하게 되었으며 아내의 신앙도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느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 경제생활을 했으나 거듭되는 실패로 삶이 어려워지는 때도 있었다. 대구 동쪽 끝에 살던 우리는 조출하게 정리된 살림을 이끌고 대구 서쪽 끝인 성서로 터전을 옮겨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어 아내는 주방을, 난 배달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가끔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 동네 주변을 산책하고는 했었는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성당이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왔다. 뽕죽한 지붕의 성당 건물을 보고 있자니 웬지 모를 양심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다. 그러나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10여 년을 하느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 선뜻 성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희끗한 노년의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어 자세히 보니 한 시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친구분이셨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시다 아주머니께서는 댁으로 돌아가셨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준비를 하고 있노라니 손님이 들어오시는데 또 그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식사를 하시고 또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다 가셨다. 아주머니는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어 왔다 들렀다."거나 "너희 집 설렁탕이 자꾸 생각나 들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오시기를 몇 달을 하셨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우리 가게에 오시기 시작하면서 성당 신부님께서도 가게에 손님으로 오셨다. 손님이었을 때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냉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신부님 성당 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미사가 없는 월요일 아침에는 갑자기 나타나시어 된장이며 반찬들을 얻어 가시고 신자들이 신부님께 드린 과일들이 생기면 반을 털어 주시고 가시기도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는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내 손을 잡으시고 "영훈아, 내 부탁이니 너 집사람 데리고 성당에 나가서 냉담을 풀어라." 하시며 내 손에 10만 원을 쥐어 주시고 가셨다. 그렇게 가시는 아주머니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디에 부딪힌 듯 멍했다.

아주머니께서 가시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 신부님과 아주머니께서 은밀하게 던져 놓은 그물에 걸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그물은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어 성당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

아내와 난 그렇게 냉담을 풀었고 하느님께서 는 어리석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우리 동네에 작은 성당은 신자들 간의 친밀감이 매우 끈끈하다. 연세가 많으신 형님들께서는 동생을 대하듯, 나이가 어린 동생들은 형님을 대하듯 서로 토닥여주고 이 끌어주었다.

어린 시절 신앙이 무엇인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깊은 고민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던 때와 다르게 내 가슴에도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였다.

내 가슴은 뜨거웠고 입은 열렸다. 그때는 주위에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받아들일 것 같았다.

그런 열정으로 나의 자식들을 시작으로 이웃을 하나, 둘 입교를 시켰다. 그리고 성당에서 주어진 소임(레지오 단장, 구역 반장)에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열정으로 무엇인가 흘린 듯 살다 문득 내 옆을 보니 아내는 또 냉담을 하여 세속의 강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아내의 냉담 이유는 신앙생활을 해도 지나치게 술을 먹는 습관은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성당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난 약간의 충격을 받았고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곰곰이 나의 신앙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내가 주변의 사람을 인도하



조영훈 안토니오
대구대교구 성 미카엘

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서 되겠는가?’라는 반
성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내를 선교하기 위
해 설득하기 시작하였으나 아내는 쉽게 돌아오
지 않았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아
내가 나를 따라오기만을 바라며 하는 말은 잔소
리가 되고 부부 간의 다툼이 되기도 하였다. 술
먹는 횟수를 줄여보기도 하였으나 아내 대한 아
내의 신뢰는 제로였다.

그렇게 외말이 신자로 가슴 한구석에 짐을 안
고 살고 있었는데 새로 오신 신부님께서 공동체
로 사목을 하신다는 방침을 세우시고 거리가 가
까운 지역끼리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다. 우리 지
역의 공동체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
동체로 연령대가 젊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공동체 모임에는 부부가
두 팀, 배우자가 외인인 형제자매가 세 명, 그리
고 나처럼 혼자 오는 사람이 2~3명, 그 외에 모
임에 참석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다.
한 번 두 번 모임이 진행되면서 남편이 외인이던
두 자매가 남편들을 선교해서 입교시켰다. 그 형
제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부부가 네 팀으로 늘
면서 우리 공동체는 부부공동체처럼 되어갔다.

젊은 부부들이 하느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신자로서 나갈 방법을 찾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고 부러웠다.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난 자연스럽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동생들아, 언니 좀 성당에 오게 해 다오. 동
생들아, 언니랑도 좀 놀아 다오.”라며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의 요청을 들은 우리 공동
체는 아내를 선교 대상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선교를 하였다.

공동체 식구들이 직접 만든 말씀 사탕을 가게
에 갖다 주며 손님들에게 나눠드리라며 두고 가
고, 손수 떡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나누면서
아내에게도 잊지 않고 주고 갔으며 공동체 식사

를 할 때도 일부러 우리 가게에서 단체 식사를
하는 등 소리 없는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에게는 술을 줄여야 언니가 성당에
온다며 사랑의 잔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
공동체 식구들이 협력하여 기도와 선교를 하고
나는 술을 줄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
력하였다. 그러기를 2년, 아내는 냉담을 풀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미사에 참여한다.

오늘은 아내가 공동체 전례에 독서를 하게 되
었다. 아직 독서는 못 한다며 거절하던 아내를 공
동체 식구들은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라며 설득하
였고 긴장하며 독서자 자리에 앉은 모습에 내가
더 긴장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말씀을 선포하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지켜본다. 그리고 더 많은 봉
사를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여건을 아쉬워하는 아내를 보면 아내의 가슴에도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아 흐뭇하다.

미사 중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냉담을 풀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아주머니나 신부님 그리고
신자들의 활동이 내 마음을 움직였고 아내가 냉
담을 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공동체 모임
과 활동이었다. 몇 달을 먼 거리를 오고 가셨던
아주머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들러 주신 신부
님, 지치지 않고 찾아주었던 공동체 식구들 그들
의 활동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것이 틀림없다.
사람의 인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복음 말씀 한 구절이 뇌리를 스쳐간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
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끝으로 주님의 은총 속에서 지금까지의 열정
과 기도가 헛되지 않고 참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일치된 모습을 보여준 기쁜 소식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원고를 읽을 모
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믿음상(최우수상)

인내와 기도, 사랑 으로 맺은 열매



현상길 마르첼리노
서울대교구 홍은동

지금 일출봉 앞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을 그 방은
비어 있다. 벽에 걸린 결혼 50주년 기념사진 액자만
이 당신들이 함께 지내던 고요한 방 안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꽃무늬 블라우스에 검정 조끼 차림으
로 서 계신 어머니 엘리사벳 곁에 양복 차림으로 앉
아 계신 아버지 미카엘. 고향에 갈 적마다 그 사진
앞에서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를 바친 후 물
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말
씀하시는 듯하다. “미카엘, 세례 받길 참 잘했어요.”,
“엘리사벳, 기도하는 당신 곁엔 늘 내가 있었지.”

2019년 2월 23일, 아버지는 한 달 남짓 병원 생
활을 마치고 퇴원하셨다. 87세가 되시는 새해에
접어들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건강
을 자신하시며 위 절제 수술에 동의하셨다. 그리
고 제주 병원에서 힘든 수술을 받으신 후 아버지
의 배 속엔 겨우 몇 술의 음식만 담을 수 있는 작
은 위 조각만 남게 되었다. 나의 귀에만 들리는,
“온몸에 전이되었으므로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
다.”는 퇴원 날 주치의의 속삭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고통스러운 병원 생
활을 끝내고 아버지를 집에 편안히 모셔 맛있는
죽이라도 맘껏 드시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실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기도로서 붙들었다. 입원과
수술, 병상 생활 내내 아버지의 무사 퇴원을 위해
자식들이 바친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겨울에 떠
났던 바닷가 마을 오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파킨슨병으로 20년 가까이 오로지 남편의 수

발에만 의지해 삶을 이어오시던 어머니는, 아내 마르셀리나와 여동생 올리안나의 설득 끝에 아버지의 퇴원 직전 제주시 외곽의 한 요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다. 중증의 부모님을 한꺼번에 집에서 돌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안 계신 방에 들어간 아버지는 잠시 침대를 손으로 쓰다듬더니 바닥에 누우려 하셨다.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이젠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1년 전 7월 말경부터 척추관협착증 악화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당신 손으로 어머니의 모든 수발을 맡아 하시던 아버지는 반려자의 체취가 묻어 있는 낡은 침대에 슬픈 표정으로 말없이 누우셨다. 낮은 탁자 위에 놓인 성모님상의 눈빛이 마치 어머니 엘리사벳의 그것인 양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하루 세 끼를 위한 분투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반 공기 정도의 여러 가지 죽과 국을 조금씩 드셨는데, 때론 오일장에서 사다 구워 낸 싱싱한 갈치 한 토막을 손으로 잡고 맛있게 드시곤 하여 우리를 기쁘게 했다. 병원 침상에서 수술 후의 극심한 통증에 괴로워하시던 얼굴을 생각하니, 갈치 토막이라도 맛있게 드시며 흡족해하시는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 끼니 때마다 등과 가슴을 두드려 드려야만 했다. 먹는 시간 외에 아버지는 거의 침대에 누워 계셨다. 화장실 갈 때는 휠체어를 이용했는데, 가장 기쁜 소식은 아버지가 대변을 보았다고 말씀하실 때였다. 그때마다 나는 어린애 대하듯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해 드렸다.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일그러져 있던 아버지의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입가엔 얇은 미소가 번지곤 했다.

그렇게 겨울의 끝자락이 흘러 3월이 되었다. 성당 일과 생업 때문에 아내와 여동생은 각각 서울과 남해로 올라갔다. 듬직한 일출봉이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의 까만 돌담길을 따라 갓 피어난 노란 유채꽃들은 샛바람에 흔들거렸다. 고향에 갈 때면 다니는 성산포성당에서 3월 첫 주일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매곡동산 뜰에서 수녀님을 만났다.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대화도 나누고 기도해 주시던 그 수녀님은 어르신 소식을 들었고 또 고생하신다면서, 아버지의 세례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밝은 목소리와 웃음으로 나를 위로해주셨다. 그 순간, 내 마음속으로 ‘세례’ 두 글자가 다시금 화살촉처럼 날아와 박혔다.

세례 - 떠올리면 언제나 가슴 따뜻해지는 말,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 나에게 영혼 치유의 묘약과도 같이 느껴지는 말이다. 나는 60세가 되던 2015년 1월 서울대교구 홍은동성당에서 ‘외곽 교우 교리반’ 과정을 이수한 후, 사순절인 2월 말에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 마르첼리노로 새로이 태어났다. 세례식이 진행되던 시간, 나의 머릿속에는 두 달여 전 성탄절 전야의 장면이 그려졌다. 밤미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에게 “나, ‘외곽 교우반’에 들어가려고…” 하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내가 말끝을 흐렸을 때, 갑자기 감격에 겨워 소리치는 아내 마르셀리나의 커다랗게 반짝이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뭐라고? 정말? 세례를 받겠다고요? 오, 하느님! 이건 기적이야!”

‘세례가 기적이라니…?’ 그때 나는 마르셀리나가 조금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세례는 진실로 기적임을. 그것은,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남자와 결혼한 후 33년의 긴 세월을 감내해 온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의 선물임을. 또한 그것은, 거실에 성모님상을 모시려던 당신의 신심을 향해 모진 혀로 상처를 입혔던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해 수없이 바치셨을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세례는 가족의 기다림과 기도, 인내와 사랑의 열매임을.

수녀님의 말씀과 위로에 용기를 얻은 나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어떤 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 힘은 아버지를 향한 이야기의 물꼬를 트게 만들어 주었다. 끼니마다 소량의 죽을 드신 후 속이 조금 편안해지시면,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어머니 엘리사벳의 신앙생활에 대한 당신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

아침저녁이면 성가를 부르시며 평화방송과 함께 바치시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자나깨나 바라보시던 십자가상과 성모님상, 봉성체를 위해 다달이 씩씩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오시던 성산포성당 주임신부님, 어머니의 쾌유를 빌며 올려주던 레지오 단원들의 낭랑한 기도 소리, 가끔 짹짹 방문하시어 이야기도 나누고 무릎 꿇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던 수녀님의 명랑한 목소리와 웃음 등….

그런 내 이야기를 듣기만 하시며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그런데 이틀째 저녁, 죽을 드신 후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 한 달에 한 번씩 성당에 갔다, 자전거 타고. 네 어머니 교무금도 내고, 수녀님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무척 애뜻하게 보였다. 그제서야 수녀님께서 언젠가 집에 왔을 때 들려준 말씀이 생각났다. ‘제가 어르신께 세례받으시라 했더니 싫다고는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더군요. 거부 아닌 침묵은 수용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마음의 변화를 직감했고, 내 안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세례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래야 다음 세상에서 어머니와도 만날 수 있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휠체어를 밀며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우신 아버지는 잠시 큰 한숨을 내쉬시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의 신호였다.

“아, 아버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성탄 전야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때의 아내처럼 똑같이 소리치며 두 손을 모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곧바로 나는 아내와 동생들에게 ‘굿 뉴스’를 전하였다. 다들 놀라워하였으며, 기뻐하였다. 나는 내가 세례를 받던 때의 설렘보다도 더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마루의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하염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콧잔등은 시큰해지고, 두 눈은 젖어 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성산포성당 연령회장직을 맡아 활동하시는 사촌 형님 프란치스코께 전화로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 그분 또한 무척이나 놀랍고 반가워하셨다. 프란치스코 형님은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찾아와 돌아가시기 전에 대세라고 받았으면 하는 의사를 밝히시킨 했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 형님은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확답은 빗처럼 빠르게 날아왔다. 목요일날 집에서 대세를 받는 것으로.

퇴원 12일째 되는 3월 7일 오전, 부드러운 봄바람이 흐르고 따스한 봄별이 가득히 내려앉은 바닷가의 작은 집에서 마침내 아버지는 프란치스코 형님의 주관 아래 대세를 받으셨다. 대부는 한동네 친지 어르신인 박 아킬레오께서 기꺼이 맡아 주셨다. 아버지의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형님께서 ‘미카엘’로 정하셨다. 아버지 생신일인 9월 28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9월 29일이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이어서 세례명을 정해 드린다는 프란치스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찾는 성당 만드는 데 힘쓸 터”



황규철 베드로/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황규철 회장은 인천지역에서 사회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부지런한 봉사 일꾼으로 소문나 있다. 인천평협 회장 외에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메일 주소가 아이러브인천(iloveincheon) 일 정도로 고향 인천에 대한 사랑이 크다. 인천은 머지않아 인구나 경제규모가 부산을 제치고 한국 제2의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될 정도로 근래 성장세가 남다르다. 그만큼 인천의 각 기관과 단체들도 사업이 많고 바쁘다.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사회봉사에 열심히 매진해온 황 회장은 올해 초 제22대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계획하고 있던 주요 사업 대부분을 미뤄야 했다. 황 회장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교구설정 60주년을 맞는 내년 사업들을 준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존음을 아껴 질문해 답해주시고 꼼꼼히 자료를 챙겨주신 황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 연초에 인천평협 회장을 맡으셨는데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1월 11일에 주교좌성당이 있는 답동 인천교구청 소성당에서 교구장이신 정신철 세례자요한 주교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회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참 마음이 벅찼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주님의 큰 일꾼으로 불러주신 데 그저 감사할 뿐이었지요. 임명장을 받을 때 “순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낙원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꼰솔라파 선교 수도회 요셉 알라마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구장

님과 지도 신부님께 순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다짐했는데 2월부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2019년에는 인천평협이 설립 40주년을 맞아 교구장 특별 전대사와 함께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인천교구청 성모 순례지에서 신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미사도 성대하게 가지는 등 참 의미 있는 사업이 많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별다른 사업도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많이 아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코 형님의 설명을 듣는 아버지의 입가엔 얇은 웃음이 번졌다. 세례명이 마음에 드시냐는 형님의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방 환한 미소를 머금으셨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인가. 병고와 수술 후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시던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복음에 이르신 그대로 ‘거룩한 변모’의 현현이란 생각이 들었다. 현 미카엘은 그렇게 탄생하였다.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며 세례 후에도 자주 마음속으로 묻기를 되풀이하던 나는, 아버지의 세례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빛을 입고자 하고, 그 불을 안고자 하며, 그 위로를 받아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시공간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온몸과 정신으로 알게 되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세례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내 손을 잡으며 어린애처럼 기뻐하셨다. 오랜 병고로 일그러지다시피한 얼굴은 밝게 빛났으며, 목소리에 예전에 없던 힘이 실렸다.

“잘했구나. 미카엘 천사.... 이제야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겠어.”

어머니 엘리사벳의 떨리는 목소리는 기쁨 반 슬픔 반으로 내 귓가를 바람처럼 애잔하게 스쳐갔다.

세례 후 아버지 미카엘의 투병 생활에 새로운 일과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닦고 식사를 하시기 전,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신 채 당신의 짝이 앉아 매일 기도를 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주모경을 바치셨다.

더 건강하시던 날에 어머니 엘리사벳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성산포성당에 함께 가시어 미사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바로 작년이 라도 이 방의 성모님상 앞에서 두 분이 함께 성모송을 바칠 수 있게 해 드렸더라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회한은 파도처럼 밀려와 내 가슴을 무너뜨리곤 했다.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낮선 요양원에서 홀로 텅그럭거리는 틀니를 붙들

고 간신히 한술밥을 힘겹게 넘기고 계실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후회의 뜨거운 눈물을 삼키곤 했다. 왜 자식으로서 좀더 일찍 아버지를 모시고 이끌어 드리지 못했던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시간이 흐를수록 마른 가지처럼 쇠잔해지시는 아버지의 육신을 대할 때마다 네 번째 계명은 나에게 호된 채찍을 가해 왔다.

퇴원한 지 약 4개월, 아버지 미카엘의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던 6월 16일에 어머니께서는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하느님 나라로 떠나셨다. 그리고 그 뒤 두 달 열흘 만인 8월 26일, 결국 아버지 미카엘께서도 어머니 엘리사벳의 뒤를 따라가셨다. 눈을 감으신 후 아버지의 모든 일은 어머니 때와 똑같이 이루어졌다. 신자들의 연도, 비 내리는 아침 성산포성당에서의 장례미사, 가족 공동묘지에의 안장, 바로 곁에 같은 크기의 봉분 조성까지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시키시고 계신 듯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곁에 계시니 좋으시지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신 채, 대세를 받으시던 그 봄날처럼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다.

어느새 늦여름 비는 그치고, 제주의 짙은 초록 들판 위의 하늘은 셋바람을 불러 먹구름을 걷어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15인승 장레버스 안에서 나는 문득 비신자인 남동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너만 남았구나.”

제작년에 심장 질환으로 한번 아찔했던 순간을 경험했던 남동생은 빙긋이 웃기만 했다. 수녀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거부 아닌 침묵은 수용이에요.’ 나는 지금 말해 두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남동생은 침묵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웃기까지 했으니.... 푸른 빛이 점점 더 널따랗게 퍼져가는 하늘을 향하여 나는 마음속으로 화살기도를 쏘아올렸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소서.’



▲ 황규철 회장이 인천평협 회장 임명장을 받은 뒤 인천교구 교구장 정신철 주교(사진 가운데)와 평협 임원들이 함께했다.

정신철 주교님의 부름을 받고 평협 회장 맡아

❖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가톨릭은 여러 가지 큰 변화와 사연이 많았습니다. 인천교구와 평협에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우리 인천교구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교구도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2월 24일부터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방지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하고자 공동체 대면 미사를 전면 중단했지요. 코로나 19가 조금 잦아든 현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협도 이에 발맞춰서 기존 대면으로 활동한 사업들을 올해는 무기한 연기하고 비대면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꾸려나갔습니다. 한국평협에서 추진한 모바일 복음 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 **올해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실 듯 합니다. 한국평협을 구성하는 공동체로서 인천평협에 대한 소**

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천평협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희 인천교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구는 유서 깊은 답동, 송림동, 부평(현 부평2동), 김포, 강화 등 5개 본당과 1958년 10월 메리놀회 선교를 시작으로 설립된 도화동, 선린동(현 해안), 연평도, 백령도 등을 합한 9개 본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초대 교구장인 나길모 굴리엘모 주교님을 중심으로 여러 본당과 단체, 기관이 그때 설립됐지요. 그 뒤 1999년 12월 27일 제2대 교구장인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을 맞이하면서 교구의 안정화의 기틀이 마련됐고 2016년 11월 10일 제3대 인천교구 교구장으로 정신철 주교님이 착좌해 지금까지 인천교구를 이끌고 계십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외에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강화, 김포, 계양, 서구, 중동구, 부평, 남구, 남동, 연수, 부천1, 부천2, 시흥안산 등 12개 지구 129개 본당에 36개 공소, 4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인천교구 평협은 올해가 설립 41년째입니다. 교구설정 18년 만인 1979년 3월 18일에 답동성당 안에 있는 가톨릭회관에서 교구

관내 본당 평신도 대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면서 인천평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 굴리엘모 주교님을 총재로, 교구 사무국장 김병상 신부를 지도신부로 추대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이병철(암브로시오), 부회장에 최일(요한), 정종원(다미아노)을 각각 선출하고 총무, 조직, 교육, 섭외, 부녀 등 5개 부서의 부장과 감사 등 평협의 실무진이 선정돼 인천평협이 출발하게 됩니다. 당시 창립총회에서 인천 평협 회칙도 마련됐고요. 인천평협은 그로부터 나날이 발전해 현재는 회장인 저를 비롯해 22대 임원진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협 집행부에 평협 단체들을 골고루 참여시켜

❖ **22대 인천평협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많이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인천평협은 어떤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어떤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지요?**

저희 인천평협은 인천교구 대표 사도직 단체인 성소후원회, 꾸르실료, 바다의 별 레지아, 인천ME, 성령쇄신봉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인천가톨릭합창단, 연령회 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장인 저를 비롯해 경제인연합회와 성령쇄신봉사회에서 각각 부회장을 맡아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는 총무부, 행사기획부, 전례신심부, 교육선교부, 문화홍보부, 사회복지부, 성소계발부, 여성부, 가정생명부, 선종봉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선교부는 본당 사목위원 교육과 본당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교구와 본당 선교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합니다. 행사기획부는 교구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습니다. 문화홍보부는 정기간행물의 제작과 배포를 비롯해 각종 행사 유인물을 제작하고 본회 활동 및 교구 사목 지침 홍보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가정생명부는 생명사랑 실천에 관한 사업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성소계발부는 본당 신학생과 예비신학생을 격려하고 성소자모임과 성소후원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종봉사부는 교구 장례 및 위령미사 지원과 본당 연령회 활동을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부는 사회봉사 활동에 협력하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처럼 평협의 주요 활동부서를 구성하면서 저는 특정한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단체의 특성을 발휘해 골고루 빠짐없이 참여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선교부는 레지오마리아에서 맡고, 행사기획부와 문화홍보는 꾸르실료에서, 가정생명부는 인천ME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서, 선종봉사부는 연령회연합회에서, 성소계발부는 성소후원회에서 맡는 등 각기 특성에 맞게 부장과 차장 등 봉사자를 두루 배치했습니다.

❖ **특별히 인천평협은 지도신부님께서 남다른 사목 열정으로 지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평협은 교구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김일회 빈첸시오 신부님의 영성 지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도신부님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김일회 신부님께서서는 1987년 신학생



▲ 인천평협 김일회 담당 사제(앞줄 가운데)와 제22대 인천평협 임원들.



▲ 김일회 빈첸시오 신부의 인천교구 사무처장 임명을 축하하며 인사를 나누는 황규철 회장.



▲ 황규철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 19로 제대로 사업 진행을 못했지만 내년 인천교구 설정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절부터 노동사목에 열정을 갖고 계셨고 신학교 노동사목 연구회인 밀알회에서 노동분야 공부를 하셨습니다. 1994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이탈리아로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1999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2004년부터 주된 사목의 방향을 노동사목으로 정하셨습니다. 김일회 신부님은 2000년 이후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을 갖고 불법이주자 문제와 국제결혼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2004년부터 가톨릭환경연대 대표를 맡으시면서 인천 계양산 살리기 운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회뿐 아니라 인천지역에서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내년 인천교구 60주년 사업 준비에 주력해

❖ 이렇게 열심한 봉사자들과 사목열정에 불타는 담당 사제가 계신데도 올해 사업들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으니 안타까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는 중요한 사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은 천주교 인천교구가 교구설정 6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이기

도 하고요. 그래서 인천평협은 연초에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성체현양대회, 평협 임원 연수와 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회와 연계하고 인천교구 청소년부, 청년부, 산하 여러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행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신앙실천운동 및 복음화'를 위해 각 본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이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천교구 원로사제님들을 위한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생명사랑 사업, 나눔 행사, 환경사업을 위한 각종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교구 성지개발을 통해 교구 평신도들에게 신앙심을 드높이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회장 임기 동안 특별히 마음에 두고 계신 활동지침이나 방향을 정해놓으셨는지요?

아무리 코로나 19로 힘들었다고 하지만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돌아보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각종 소모임들을 할 수 있게 됐으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새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교회 본당이 활성화되려면 어

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어린이 및 청소년 활성을 위한 합창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젊은 신자들인 청년,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교구뿐만 아니라 타 교구에서도 같은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임기 동안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에 주춧돌이라도 놓아 봉사하고자 합니다.

❖ 인천교구 평신도를 대표해 인천교구 쇄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교구 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천교구에 달라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교구가 쇄신을 단행하는 의지로 6월 19일 교구 쇄신위원회와 성직자 쇄신위

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구 쇄신위원회는 교구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13명으로 꾸려졌는데 인천교구총대리 이용권 신부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부님과 수녀님 등 수도자도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천평협 회장인 제가 평신도 대표로 참여하고 대학 교수와 외부인사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교구 쇄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우선 1차로 교구쇄신에 대한 의견을 사제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평신도와 수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수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회의의 결과물을 토대로 교구 차원에서 선제적 쇄신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구장이신 정신철 주교께서는 지난 6월 19일 사제 성화의 날에 미사를 봉헌하며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록하



▼ 평협 회장에 선임된 뒤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인사말을 하는 황규철 회장.

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며 사제들에게 하느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어렵게 쇠신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인천교구의 새로운 6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늦은 나이에 신앙 받아들여

❖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신앙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물론 역사도 알아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천주교회에 입교했습니다. 제가



▲ 황규철 회장은 이메일 주소가 '아이리브인천' 일 정도로 인천 사랑에 헌신하는 봉사자다.

20대 사회생활을 시작으로 60대에 접어들기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앙 생활을 하시는 교우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 덕택에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이 지극히 평범함을 고백합니다. 성당 활동을 하다보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투철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회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제가 참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저 늦은 나이에 입교하여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가톨릭 신앙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협 활동에는 어떻게 몸담게 되셨는지요?

평협 일도 참 엉겁결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신부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신부님이신데, 함께 교구장님을 뵙자고 하여 별 생각 없이 답동 인천교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첫 만남에서 교구장님이 제게 “평협 회장을 맡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충실히 이어가지 못했던 저에게는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교구장님, 담당 사제를 잘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제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제가 천주교회에 입교해 평협 활동까지 하게 된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저처럼 신앙을 받아들이고 평협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 도와준 기억 보람으로 다가와

❖ 오랫동안 건설인으로 살면서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 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으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천은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 그 이상입니다. 인천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건설협회, 적십자회 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인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자연스럽게 제 가슴에 자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으로 2011~2017년까지 6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유하고자 노력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은 제 가슴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는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인천인으로서는 건설, 봉사, 애향 직무의 대표자로 살아온 것이 저의 큰 자부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직무 경험을 발판으로 인천 평협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의 낡고 오래되고 비좁은 집에서 8명의 대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부인은 외국인이었었는데, 노부모를 모시면서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장마철 비가 새는 열악한 거주 환경 속에서 이 대가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워서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집을 수리해준 것을 계기로 그 때부터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



▲ 인천교구 정윤화 총대리 신부님 은퇴미사 뒤 영적 예물을 드리는 황규철 회장. 늦은 나이에 신앙을 받아들인 황 회장은 자신처럼 천주교회에 입교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황규철 회장. 인천인으로서는 건설, 봉사, 애향을 위해 살아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다.

금도 전국의 여러 사회복지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때 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는 외국인 부인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와 적십자사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왔던 그때가 지금도 보람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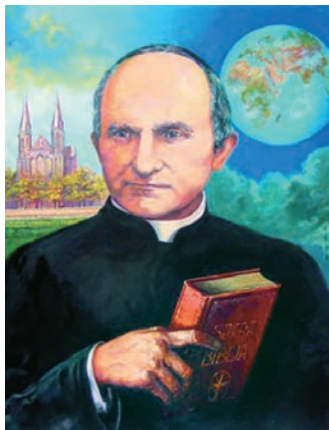
수도회 탐방

말씀의 빛 - 말씀의 선교수도회

글 서희정 마리아
사진 말씀의 선교수도회 제공

“코로나 19가 초래한 고통과 도전 속에서도 교회의 선교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된다.”

고백하자면 지난 10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 귀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선교는 커녕, 제 신앙마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내 코가 석 자’, 내 신앙이 석 자였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19 이전에도 멀게만 느껴졌던 선교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사목기획팀이 지난 7월에 실시한 ‘코로나 19와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평신도가 신앙에 있어 갈증, 두려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 안의 선교.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향한 선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 성 아놀드 얀센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점점 지쳐가는 요즈음이지만 사실, 어떤 시대든 힘든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배워 온 힘겨움이든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힘겨움이든, 또 종류가 어떻든 말입니다. 1870년대 독일이 겪고 있던 힘겨움은 반(反)가톨릭적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인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기 마련인지, ‘말씀의 선교수도회(神言會: SVD)’는 그 반가톨릭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861년에 독일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성 아놀드 얀센(St. Arnold Janssen) 신부는 비스마르크의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선교 신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이웃 나라인 네덜란드 슈타일(Steyl)에 선교 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1875년 9월 8일, 이날이 바로 말씀의 선교수도회 창립기념일입니다. 반가톨릭적 분위기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당시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모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 18차 말씀의 선교수도회 총회

에도 많은 이들은 “파괴의 시간에 신학교 건립은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 아놀드 얀센 신부는 만류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그 시간이 바로 다시 세워야 하는 시간이며 해외 선교를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내 안의 신앙도 지키기 어렵다며 징징거리던 제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준 말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시간이 어찌면 제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세워야 하는 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이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계획해 보는 시간, 이 기회에 기도를 튼튼하게 세워 앞으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굳건할 수 있는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성 아놀드 얀센 신부는 그 기도를 ‘말씀’이라 보았습니다. 세상이 가리고 있어 보이지 않았던 ‘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요한1,1)’을 다시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미사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눈물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그날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미사 때만이 아니라 ‘말씀 사탕’을 뽑았을 때, 무심코 성경을 펼쳤을 때, 방송에서 말씀이 들려 왔을 때처럼 마치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복잡했던 마음에 실마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일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 ‘말씀의 선교수도회’가 설립된 지 10여 년 만인 1889년 12월 8일에 ‘성령선교 수녀회(SSpS)’를, 1896년 12월 8일에는 관상 수녀회인 ‘성체조배의 성령선교 수녀회’를 창설하여 ‘아놀드 얀센의 선교 가족 수도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 아놀드 얀센 신부는 1909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5개의 선교 신학교를 설립하였고, 이후에도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1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 아시아지역 담당자 모임

100여 개 양성의 집에서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2020년 현재는 세계 72개국에서 6,000여 명의 선교사와 3,500여 명의 성령선교 수녀, 400여 명의 성체조배의 성령선교 수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야말로 '한 처음에 계셨던 말씀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요한 1,14)'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수도회가 설립됐을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농부가 뿌린 씨를 자라게 하는 건 하느님이시듯, 어둠을 타하지 말고 나부터가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전 세계가 이번 2020년은 없던 해로 하고 다시 한번 2020년을 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2020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김없이 겨울이 왔고 대림이 왔고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말씀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나지 않고 느끼지 못했는가 스스로 묻습니

다. 마치 작년에만 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끔 '내가 하느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고는 합니다. 양심 따위 못 느끼며 편하게 살았을 거란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참 불쌍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거란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폭풍이라도 만나면 금방 가라앉고 마는 가벼운 존재로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때면 하느님을 알게 해 준 어머니가 한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성 아놀드 안센 신부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고 그중에서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

회가 창설된 지 4년만인 1879년에 첫 선교사인 요한 바티스트 신부와 요셉 프라이나테메츠 신부가 중국에 파견되었고 그 결과, 최근에 선교가 시작된 태국과 미얀마를 포함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타이완, 필리핀, 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선교사 수가 전체 '말씀의 선교수도회'의 53% 일 정도로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1892년에 토고를 시작으로 한 아프리카 선교도 가나, 보츠와나, 앙골라, 자이레, 케냐 등으로 이어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수도회의 사명이 충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의 선포를 위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열린 선교 소명을 갖는 것이 수도회 입회에 필수 조건입니다.

받아들이는 이들을 향한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선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선교수도회'는 선교를 외부의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그들 삶 안에 이미 현존하시는 주님을 찾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그래서 양성 기간에는 Regency(선교 현장 실습 기간) 및 O.T.P.(해외 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및 타국의 언어, 문화, 풍습 등을 체험하며 미래 선교사의 자질을 준비시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서 주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들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런 주님을 보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교수도회'의 선교 방법을 배우고 느끼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알고 있는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는 과연 주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 가나 선교



▲ 아프리카 선교



▲ 호주 선교

선교는 보편 교회의 임무

'말씀의 선교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1984년 8월 24일입니다. 당시 수원교구 교구장이셨던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의 초청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한국에는 6개국(마다가스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콩고, 필리핀)에서 17명의 외



▲ 한국지부 지부장 취임 미사

국인 회원과 6명의 한국인 회원이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부터 학교, 교육, 병원, 출판 인쇄, 피정 지도, 매스컴(TV, 라디오 방송), 농어민, 소수 부족, 특수 사목, 가난한 이들의 생활 개선, 사회 정의와 평화 운동 등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활동은 그저 도구일 뿐,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회 창립자의 성 아놀드 얀센 신부는 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죄의 어둠과 불신의 밤은 ‘말씀’의 빛 앞에서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이의 마음 안에 계시다.”
내 코가 석 자, 내 신앙이 석 자’라며 들리지 않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이제야 들려 오는 듯합니다.

‘말씀의 선교 수도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와 친교를 원하시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
가 그분의 자녀로 살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선
교는 보편 교회의 임무이다. 때문에 우리는 선교
가 우리만의 고유한 소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선교 활동은 그 교회의 선교 임무에 참여
하며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
리하여 우리의 선교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친교
를 위해 사람이 되시어 인간으로 생활하신 말씀
(Divine Word)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과 모든 사람
이 이루는 친교의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선
교가 고유한 소명이라 생각하지 않는 수도회와는
달리 정작 나는 수도회나 특별한 이들이 하는 특
별한 활동이라 여기며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
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깊은 곳에 말씀을 간직
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선교의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말입니다. 



▲ 호주에서의 미사

나눔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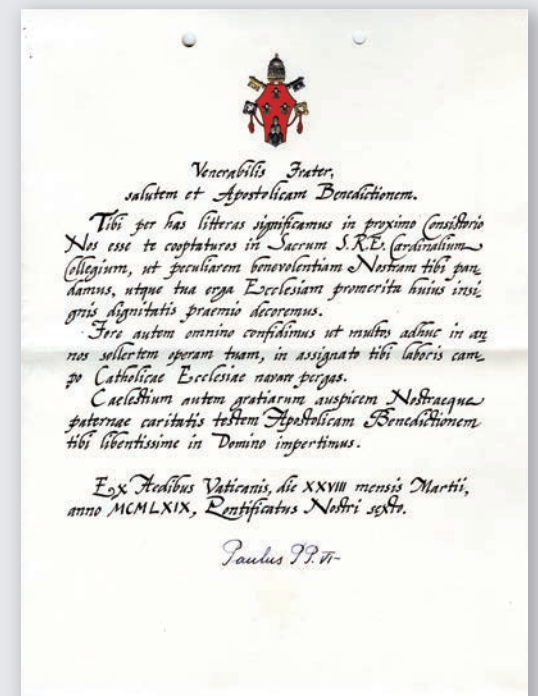
추기경 서임을 알리는 서한과 회보

글·사진
송란희 편집위원

서울대교구 설정 200주년 기념 역대 교구장 자료 제1집 『김수환 추기경 유물 자료집』(한국교회사연구소, 2020)에 수록된 추기경님의 유물을 소개합니다. 추기경님의 유물은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넘어 사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신앙과 삶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김수환 주교의 서울대교구장 임명 소식이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도 큰 화제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채 1년이 안 된 1969년 3월 김수환 대주교는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한국 가톨릭교회 최초의 추기경이 탄생한 것이다. 추기경 임명 소식은 한국 사회는 물론 본인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다. 추기경 임명에 대한 일화는 여러 신문과 잡지의 기사와 회고록, 평전 등에 이미 수차례 소개되었다.

“추기경 임명 소식을 처음 들은 곳은 일본 후지산 기슭에 있는 작은 자매회 수련원에서였지요. 조치 대학 재학 시절의 은사였던 게페르트 신부님께서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한 말은 ‘임파서블’(불가능하다)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교회 일로 로마에 들렀다가 일본을 거쳐서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택시 속에서도 반신반의하며 1km 아래쪽에 위치한 성신학교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신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



▲ 「교황 바오로 6세 서한」(1969. 3. 28, 서울대교구 문서고 소장)
“친애하는 형제에게 교황 강복과 인사를 전하며, 귀하를 성교회의 추기경단에 받아들이 것을 이 서신을 통해 알리는 바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 교황 바오로 6세에게 성직을 선물로 받는 김수환 추기경(1968. 10. 7)

소 실감으로 느껴졌습니다”(『김수환』,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가톨릭시보』는 추기경 서임 소식을 “수난 얹힌 2백년사의 결실”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1면 기사로 소개하였다. 추기경 탄생은 박해와 순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온 한국 가톨릭교회에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백배의 상’이 분명했다.

이번 호에는 추기경 서임 관련 사료 2점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사료는 1969년 3월 28일에 작성된 교황 성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의 「서한」이다. 교황의 서한에는 “친애하는 형제에게 교황 강복과 인사를 전하며”로 시작하여 “귀하를 성교회의 추기경단에 받아들일 것을 이 서신을 통해 알리는 바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정식 임명 칙서를 내리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편지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김수환 추기경의 주교(마산교구장), 대주교(서울대교구장) 임명 칙서에 이어 추기경 임명 칙서도 주신 분이다. 한 교황에게 고위 성직자 임명 칙서를 모두 받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로 정진석 추기경은 주교, 대주교, 추기경 칙서를 성 바오로 6세, 성 요한 바오로 2세(재위 1978~2005), 베네딕토 16세(재위 2005~2013) 교황에게 받았으며, 염수정 추기경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받았다. 그만큼 김 추기경은 짧은 기간에 주교에서 추기경이 되었다.

김 추기경의 회고에서처럼 “춘터 나는 자신을 주교, 대주교, 추기경으로 임명한” 교황 바오로 6세는 한국 교회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1968년 5월 29일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한 김수환 대주교는 같은 해 10월 6일에 열리는 병인 순교자 24위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노기남(盧基男, 1902~1984) 대주교, 교황대사 로톨리(Ippolito Rotoli, 1914~1977) 대주교 그리고 1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알italia(Alitalia)를 타고 로마로 떠났다. 1925년 79위 시복식이 열렸던 당시에는 한국인이 단지 세 명(한기근 신부, 장명, 장발)만 참석했는데 43년이 지난 후 1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그것도 전세기를 타고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떠나는 장면은 장관이었을 것이다.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의 시복식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구라파 신자들은 한국 순교사를 연구하여 한국 가톨릭의 훌륭한 표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다. 7일에는 한국 주교단과 한국 신자들 총 360명이 바티칸 동편 건물 5층에 있는 성당에서 교황을 알현했다. 이날 교황은 한국 교회에 주는 선물이라며 김수환 대주교에게 성직을 선물했다. 그 성직은 바오로 6세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1967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벨기

에 브뤼셀에서 헌정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초상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의 문장이 장식되어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교황님이 자신의 손을 꼭 잡을 때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김수환 대주교는 추기경 서임식에서 또다시 바오로 6세의 자부적 사랑을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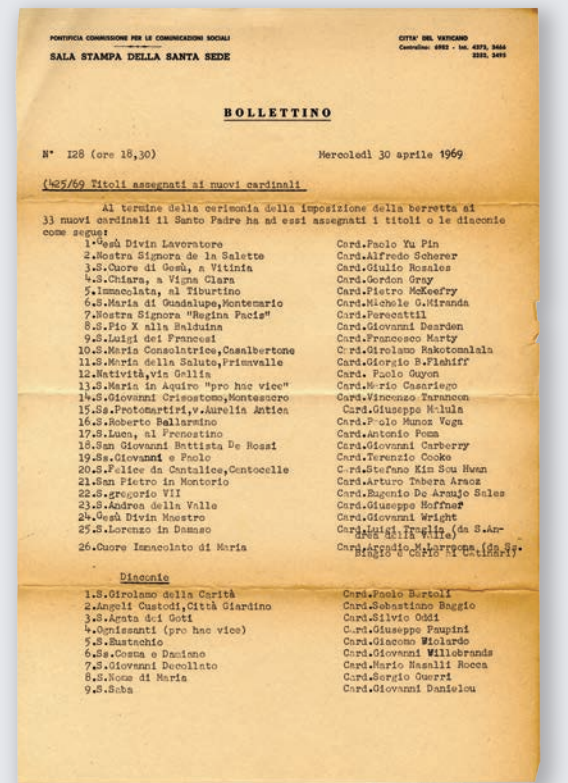
그리고 9년 후인 1978년 8월 6일 바오로 6세가 선종했을 때 추기경은 자신과 한국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교황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했다. 추기경은 8월 12일에 봉헌된 교황의 장례 미사에 참석하였고, 미사 후에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conclave)에도 참석했다. 추기경에게 부여된 첫 투표권 행사였다.

두 번째 사료는 새 추기경 임명 소식이 실린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회보」(제128호, 1969. 4. 10, 이하 회보)이다. 18개국 35명 새 추기경의 명단과 명의 본당을 소개하였다. 1969년 추기경 서임 발표 당시 보도된 신문을 보면 35명 가운데 33명의 이름만 공개되었고 2명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2명은 공산 진영 내의 고위 성직자일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이 「회보」에는 전체 명단이 실려 있다.

추기경(樞機卿, cardinal)에는 3개의 지위가 있다. 주교 추기경과 사제 추기경 그리고 부제 추기경이다.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 염수정 추기경은 사제 추기경이다. 「회보」에는 사제 추기경 26명과 부제 추기경 9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유럽과 선진국에 국한되어 뽑던 추기경을 한국은 물론, 인도, 필리핀, 콩고 등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던 나라들에서 선출한 교황 바오로 6세의 결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인 ‘교회의 쇄신과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인 행보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받았다. 「회보」에 실린 새 추기경 순서를 보면 김 추기경은 20번이고, 23번은 회프너

(Joseph Höffner, 1906~1987) 추기경이다. 회프너 추기경은 김 추기경의 독일 뮌스터 대학 유학 시절의 은사로, 스승과 제자가 동시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어 다시 만났다. 서임식 당일 회프너 추기경보다 먼저 임명장을 받은 김 추기경이 얼굴을 붉히며 죄송스러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회보」에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또 한 명의 추기경이 있다. 1번 우빈(于斌, 바오로, 1901~1978) 추기경이다. 그는 중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추기경이며 중일전쟁 시기 중국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한국 천주교회는 물론 한국독립운동



▲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회보」(1969. 4. 30, 서울대교구 문서고 소장) 회보에는 새 추기경들이 맡는 로마 교구의 명의 본당 이름도 명시되어 있다. 명의 본당은 ‘추기경은 반드시 로마 본당의 신부라야 한다’는 오랜 전통에 따라 추기경이 주임을 맡게 되는 로마 교구의 성당을 말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명의 본당은 ‘산 펠리체 다 칸탈리체 첼토첼레’(San Felice da Cantalice a Centocelle)였다. 대만의 우빈 추기경의 명의 본당은 ‘예수 디비노 라보라토레’(Gesù Divino Lavoratore)였고, 회프너 추기경의 명의 본당은 ‘산타 안드레아 델라 발레’(S. Andrea della Valle)였다.

나눔



▲ 김수환 추기경과 우빈 추기경(1969. 4. 28)
가운데 왼쪽이 김수환 추기경이고 오른쪽이 우빈 추기경이다.



▲ 노기남 주교가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한 우빈 대주교(명동 주교관, 1959. 5. 14)
오른쪽 노기남 주교 옆이 우빈 추기경이고 왼쪽 끝은 람베르티니 (Egano Righi Lambertini, 1906~2000) 교황사절이다.



▲ 서울대교구 설정 65주년 기념 사료 전시회장에서 글을 남기는 우빈 추기경(서울 신문회관, 1976. 4. 7)

지도자들과도 인연이 깊다. 특히 한국인과 임시 정부를 항일전쟁의 동지로 인식하고 350만 중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한국 독립을 후원하도록 독려했다. 우빈 추기경은 1940년 9월 17일에 중경(重慶)에서 열린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전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우빈은 비단 깃발에 '바르고 공명한 기풍을 협력하여 드러내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협양정기"(協揚正氣)를 친필로 써서 선물했다. 김구는 답례로 "정의사자"(正義使者)라고 수놓은 비단 깃발을 선물하였다. 이후 김구는 우빈 추기경의 주선으로 중화민국의 장개석(蔣介石, 1887~1975)과도 면담을 했다.

우빈 추기경은 1954년 4월 첫 내한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1959년 내한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문화훈장을 받았고, 1961년에는 김구 선생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했다. 그리고 1969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1976년에 내한했을 때는 한국교회사 연구소가 개최한 '서울대교구 설정 65주년 기념 사료 전시'가 열린 서울 신문회관을 찾아 전시를 보고 친필을 남기기도 했다. 이때 쓴 친필 원본은 현재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김수환 추기경도 1971년에 우빈 추기경의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1978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선종 소식을 듣고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장례 미사에 참석했던 우빈 추기경은 미사 중에 쓰러졌고 4일 후인 16일에 선종하였다. 18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장례 미사를 거행했으며, 그날 참석한 94명의 추기경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도 있었다.

한 사람의 유품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보고자 했으나 남겨진 사료와 유물은 그 한 사람을 뛰어넘어 역사를 보게 한다. 역사가 주는 인식의 확장은 언제나 짜릿하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문을 열 열쇠를 쥐어 주기 때문이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4

몰리마르 신부와 평택 성당

글·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한국 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시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신앙의 증거자”인 이분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살아생전에 직접 뵈 독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식(라자로) 주교님의 바람대로 “특별히 이분들이 하늘에서 우리 교회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승훈 베드로가 평택에 복음의 씨를 뿌리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평택(平澤)이라는 지명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李承薰, 베드로)이 1791년 6월에 잠시 평택 현감으로 부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가 처소에서 30여 리 떨어진 대추리(大秋里)를 찾아가 처음 복음을 전하였다는 구전(口傳)이 내려옴니



▼ 평택 성당 전경

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용산의 미군 부대를 이곳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반대 시위를 벌였던 바로 그 ‘대추리’입니다.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이승훈이 비록 전교를 위해 현감으로 온 것은 아닐지라도 평택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첫 사도였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대추리 공소는 1888년 7월 왕림(旺林, 옛 갓등이)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이곳에 속해 있다가 양촌(陽村, 현 구합덕) 본당, 공세리(貢稅里) 본당, 안성(安城) 본당으로 관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 6월 왕림 본당의 김원영(金元永,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일제의 탄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림 성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앙



▲ 몰리마르(요셉, 牟) 신부

생활을 하는 평택 지역 신자들을 위해 적봉리가 마골에 진위(振威) 본당을 설립하였습니다.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평택역이 생기고 1911년경부터 국도와 지방도가 개설되어 발전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쓴 『허생전(許生傳)』에도 나오고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안성보다 철도 개통으로 사통팔달 지역이 된 평택이 인근의 농산물과 생필품 집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요. 초대 주임으로는 왕림 본당 보좌로 있던 김영근(金永根, 베드로) 신부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나 1927년 7월 마룡리(馬龍里, 현 용문) 본당으로 전임되면서 진위 본당은 설립 2년 만에 목자 없는 공동체가 되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몰리마르 신부가 평택 본당과 서정동 본당의 기초를 다지다

1897년 3월 22일 프랑스 님(Nîmes) 교구의 가르(Gard) 지방 보베르(Vauvert)에서 태어난 몰리마르(J. Molimard, 牟, 요셉) 신부는 1924년 6월 29일 사제 서품을 받고 9월 14일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하여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1920년 대신학교 시절에 바친 기도 가운데 “주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보내시는 어디라도 가렵니다. 당신과 더불어 일할 것이며 당신과 함께 죽으렵니다.”라는 구절로 보아 선교사의 꿈은 신학생 때부터 품었던 것 같습니다.

1925년 11월 12일 부산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그는 이듬해 5월 황해도 매화동(玫瑰花洞) 본당 보좌로 사목을 시작하였고, 그해 11월 30일부터는 경기도 수원 병점(餅店) 공소에서 우리말을 배우며 폐쇄된 진위 본당 지역 신자들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성 본당 공베르(A. Gombert, 公安國) 신부의 도움을 받아 1928년 2월경 현재의 성당이 자리 잡은, 읍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비전리(碑前里) 야산을 매입한 뒤 4월 14일 평택 본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신자수는 78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몰리마르 신부는 본당 부임 전, 병점에 머무르면서 중국인 기술자를 모집하여 30평 규모의 사제관과 50평 규모의 성당을 완공하였기에 11월 7일 라리보(A. Larribeau, 元亨根) 보좌 주교 집전으로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1929년 4월 주님 부활 대축일에는 고향에 있는 프랑스 신자들이 보내준 ‘천상의 모후’ 대상분을 성당에 안치



▲ 1930년 1월 1일자 「성모 월보」

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자 그는 이곳에 성당을 짓고 1934년 9월 29일 라리보 주교 집전으로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한편 몰리마르 신부는 1930년 11월에 충북 괴산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뮈텔(G. Mutel, 閔德孝) 주교에게 간청하여 평택 본당에 남을 만큼 그는 이곳을 각별하게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지 12년 만인 1937년에 휴가를 얻어 고국 프랑스로 갔다가 귀국해서도 평택 본당 제3대 주임으로 다시 부임하였으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였고, 매월 「성모 월보」를 발행하여 본당 소식과 교리 내용을 본당과 공소 신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서울의 라리보 주교가 설립하여 직접 관리해 오던 서정리(西井里) 공소가 지역적으로

평택으로 돌아온 몰리마르 신부는 서정리 공소에 더욱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곳에 서양식 벽돌로 사제관을 건축한 것도 본당 승격과 함께 이곳으로의 전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제관이 신축되자 몰리마르 신부는 1938년 10월 서정동 본당 초대 주임이 되었으나 곧이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39년 9월 징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료 선교사 5명과 함께 중국 텐진(天津)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소집령 해제를 받아 본당으로 곧바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무렵이라 일제의 감시가 점점 더 심해져 사목 활동도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해야 했지만, 몰리마르 신부는 본당 정착에 더욱 노력하여 본당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1948년 5월 8일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된 신설 교구가 대전 지목구를 맡아 충청남도 전역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몰리마르 신부도 애정 깊은 서정동 본당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평택과 서정리 모두에 사제관과 성당을 신축하고 본당을 설립하여 이 두 지역 사회에 20여 년 가톨릭을 전파한 그였기에 아쉬움이 누구보다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 서정리 공소 모습과 서정리 성당 신축 직후의 모습(1934년 10월 3일)



▲ 몰리마르 신부의 시신이 발견된 대전 목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홀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 의해 7월 20일 대전까지 함락되자 몰리마르 신부는 도양골 공소로 잠시 피신했다가 신자들의 만류에도 성당으로 돌아와 한동안은 별 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의 민가에서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공산군은 이를 빌미로 8월 어느 날 성당과 사제관을 수색하여 성물과 집기를 압수한 뒤 몰리마르 신부를 부여 내무서로 연행하였습니다. 내무서에서 약 한 달 동안 신

부여 금사리 성당을 지키다 끝내 순교하다

1948년 7월 30일 부여 금사리(金寺里) 본당 제9대 주임으로 부임한 몰리마르 신부는 이곳에서도 복음 전파와 본당 분리·설립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1950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전쟁이 6월 25일 주일 새벽 터졌습니다. 전쟁 발발 사

양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은 그는 대전으로 압송되어 이곳에서 또다시 지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9·28 서울 수복이 임박한 9월 16일 정치보위부로 사용되던 목동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으로 끌려가 23~26일경 파리의방전교회 동료 신부 5~6명과 700명이 넘는 민간인 수감자

들과 함께 피살되었습니다. 유엔군이 빠르게 진격해 오자 공산군은 이들을 성당과 수도원에 뿔뿔하게 몰아넣고 증오와 격분에 차서 지근거리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몰리마르 신부의 시신은 공산군이 퇴각한 뒤인 9월 30일경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2명의 금사리 본당 청년 신자들에 의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겹겹이 쌓인 수백 구의 시체더미에서 몰리마르 신부의 시신만은 체포될 때의 수염을 기른 얼굴 모습과 수단을 입은 복장 그대로여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에 총탄 한 발을 맞고 그대로 순교하였답니다.

1950년 11월 13일 거의 모든 금사리 본당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생제(P. Singer, 成載德) 신부의 주례로 슬픔 속에서 장례 미사가 치러졌고, 이듬해

1월 25일에는 그의 고향인 프랑스 님 교구의 주교 좌성당에서 장엄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후 1953년에 그의 유해는 목동 성당 경내에 조성된 프란치스코 수도원 묘역으로 이장되었고, 대흥동 본당 주임 오기선(吳基先, 요셉) 신부는 1954년 9월 26일 수도원 경내에 순직비를 건립하였으며, 1960년 3월 24일에는 대전교구 성직자 묘역으로 다시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본당에서는 초대 주임으로 본당을 개척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대전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2003년 5월 10일 성당 경내로 유해를 이장하고 대리석 묘비를 세웠습니다. 2008년 11월 30일에는 본당 교육관을 '몰리마르관'으로 명명하고 축복식을 거행하였고, 2016년에는 흉상 제막식, 자료집 발간 등 몰리마르 신부의 생애를 본받고 현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도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자료집 제2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018.

수원교회사연구소 역편, 『몰리마르 신부 자료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16.

『몰리마르 신부의 최후』, 『교회와 역사』 27호(1977년 12월), 한국교회사연구소.

『평택 성당 70년사』, 천주교 수원교구 평택 성당, 1998.

『서정동 본당 75년사』, 천주교 수원교구 서정동 성당, 2013.



▲ 몰리마르 신부 묘역과 흉상



▲ 몰리마르관

45 평상

나의 신앙 선조

나를 이끄시는 분

구술·사진제공 / 이춘만 크리스티나(조각가)
정리 / 홍희기 미카엘라(서울대교구 성미술담당)



▲ 조각가 이춘만 작업실에서(2008)

나의 고향

나는 1938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에서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의 당시 목포는 매우 작은 도시였지만 목포항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도 일본인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였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머리 좋고 수완 좋은 멋쟁이 신사에 한량이었고 목포에서는 소문난 부자였다. 일본을 왕래하느라 부재중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어머니가 도맡으셨다. 어머니는 배움은 짧아도 총명했고 아버지 못지않게 배포가 크셨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나를 애지중지 키

워 살려내신 분은 어머니였다. 갓 태어났을 때 이미 죽은 줄 알고 아버지가 포대기에 싸서 밖에 내어놓았는데, 뒤늦게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걸 발견하셨던 어머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느라 애간장이 다 녹으셨다. 덕분에 호랑이띠에 태어났음에도 호적에는 3년 늦게 1941년으로 올려졌다. 그래도 학교는 호적보다 일찍, 실제 제 나이에 들어갔다.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들의 특징은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집에서 책만 보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경

우가 많은데 나 또한 그랬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책 안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또 친구 중에 목포 삼거리에서 책방을 하는 집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 덕에 그곳의 책은 다 읽었다. 내 기억에 뜻을 알진 모르건 간에 어려운 논문집까지 다 읽었다. 간간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다 준 책들도 있었는데 서양미술에 관한 그림책이었다. 그로 인해 나의 시야와 세상은 점점 넓어졌다.

내가 사는 동네의 언덕에는 1897년, 제8대 조선대목구장 뮌텔(1854~1933) 주교에 의해 설립된 광주대교구 최초의 성당이 있었다. 지금은 산정동성당이지만 당시에는 목포성당이었고, 이곳에서는 파리외방전교회(M.E.P.)를 중심으로 벽안(碧眼)의 외국인 신부와 수녀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집은 물론 내 주변에는 성당에 다닌다는 친구도 없었고, 어머니는 교회보다 점쟁이를 더 맹신하는 분위기여서 마음 놓고 드나들 수는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보아온 범상치 않은 그들의 외모와 일거수일투족이 내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한 나의 세계는 목포를 너머 저 멀리 프랑스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면서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현실도피적 수단으로 막연하게 그들처럼 수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의 어머니

바람둥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어머니는 딸들에게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셨다. 어릴 때부터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 화가가 되거라.”라는 미술 선생님의 조언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어머니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당시 일본의 패망으로 동경에서 유학하다가 귀국한 미술학도들이 목포로 들어와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훗날 호남대 총장을 지낸 오사가 미술대학 출신의 양인옥(1926~1999) 선생님이 목포여자중학교에 미술 교사로 부임하였다. 어머니

의 막강한 지지로 소묘를 비롯한 실기와 기초이론을 5년간 사사하고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 입시장에는 장발(1901~2001) 학장님을 비롯해 김종영(1915~1982), 김세중(1928~1986) 선생님 등 여러 교수님들이 계셨다.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이게 동경식 소묘다.”라고 말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서울미대 스승

서울미대에 입학하고 나서 장발 학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수진이 가톨릭 신자인 것을 알았다. 식사하기 전에 성호를 긋는다거나, 정오에 삼종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고향마을의 산정동성당이 떠올랐고, 거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느낌이었다.

1학년이 끝나고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조각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당시 회화로 전공을 바꾸려면 B학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세중 선생님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불렀다. 선생님은 그냥 조소과에 남으라는 것이었다. 김세중 선생님은 내가 평소 즐겨 읽던 책을 통해 접한 김남조(1927~) 시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미 공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대



▲ 1959년 영세기념-우측이 이춘만



▲ 절두산순교자 현양비(우측에서 두번째 이춘만)



▲ 이춘만 성미술개인전(2008)

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명동성당을 찾았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막내 여동생을 계성여고에 전학시키는 일을 계기로 알게 된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안내로 교리를 받고 1959년 6월 21일에 세례를 받았다. 돌이켜볼 때 누구도 직접적으로 내게 성당에 다니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스승 김세중 선생님과 이춘만, 1984년 개인전

졸업 후에, 김세중 선생님이 여러 성당 작업에 나를 참여시키셨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번은 작업 중에 이화여대 대학원 동기들과 해외 여행을 가버렸다. 이를 알게 된 선생님께서 매우 노여워하시며 성물 작업 중에 놀러 다니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작업에 임할 때는 봉쇄수도원의 수도자처럼 모든 일상생활과 거리를 둔 채 고립된 생활을 한다.

김세중 선생님과 인연으로 시작된 성물 작업은 1984년 변동성당의 세례대와 부활 촛대, 1986년 안양 성 라자로 마을의 십자가의 길, 1990년 천호 성지의 십자가의 길, 2000년 절두산 순교성지 대형 순교 기념비와 야외 십자가의 길, 2003년 명동대성당과 꼬스트홀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전신상과 흉상, 2006년 남양성모성지 십자가의 길, 2009년 서강대 노고산성지 순교 현양비를 비롯해 2015년 광주대교구청 비움 십자가와 내 고향 목포 산정동성당의 성모칠고에 이르기까지 전국 요지의 성당과 성지에 그 누구도 여자가 했다고 하기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한 엄청난 규모로 남아 있다. 여든이 넘는 지금,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놀랍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교육시켜, 신앙의 도구로 이끄셨음을 이제 와 비로소 깨닫는다. 

이콘

이콘 - 네 번째 이야기

성모님의 이콘 II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 / 서울대교구 이콘 연구소 소장

1. 표상의 성모

지난 호에 소개한 것과 같이 성모님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느님과 인류의 중재자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오란스' 라고 하는 형태의 이콘이 4~5세기경에는 성모님의 가슴에 아기 예수가 그려진 '표상의 성모'라는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 이는 성모님이 두 손을 모두 들고 있기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있는 형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주님께서 몸소 여러 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



▲ 표상의 성모 18세기

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나타낸 것으로 이 성서 구절의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징', 또는 '표상의 성모'라고 부르며 때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the Great Panagia(All Holy)" 또는 "당신의 자궁은 하늘도 다 담지 못할 분을 품었기에 당신은 하늘보다 광활합니다."라는 비잔틴 찬가를 근거로 "하늘보다 광활한(Platytera ton ouranon) 분"이라고도 불린다. 이 형태의 이콘은 반신상으로 그려지고, 성모님이 서 있는 형태의 전신상으로 그려진다.

러시아에서는 Kiev로부터 Yaroslavl로 전해지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12세기에는 노브고르드라는 도시를 수즈달 군이 공격했을 때 노브고르드 시민들은 이 표상의 성모 이콘을 성벽에 걸고 성모님의 도움을 청했고, 이때 수즈달 군인들은 시력을 잃고 대패하는 기적이 일어나 이를 계기로 표상의 성모는 특히 노브고르드 시에서 크게 공경을 받게 되었다. 또한 1352년에는 흑사병으로부터 노브고로드를 다시 한번 더 구하였기에 지금까지도 노브고로드에서는 11월 27일을 표상의 성모 성화 축일로 정하고 도시의 수호자로 크게 공경하고 있다.

이 표상의 성화는 때로는 성모님의 머리 좌우에 두 명의 천사가 날고 있는 모습을 함께 그리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천사들은 동방교회의 성찬



▲ 떨기나무의 성모

예식에서 에피클레시스 이후 부제들이 영대를 목에 걸고 가슴에서 십자형으로 교차하여 고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즉 이 성모 성화는 신성한 성찬 전례도 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가슴 중앙에 묘사한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마치 둥근 제병에 새겨진 주님의 모습처럼 성찬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임마누엘은 바로 지상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낸 것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이신 마리아를 통해 그녀의 가슴에 품고 있는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2.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의 성모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모습을 묘사한 동방교회의 성화들에서는 그 불꽃 속에 앞서 소개한 표상의 성모 또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성모의 모습이 함께 그려진다. 그리스나 러시아 등 동방의 정교회 국가들을 방문하다보면 이 낯선 모습에 가톨릭 신자들 특히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적잖이 당혹해한다. 모세와 성모님은 어떤 연관 관계인가?

동방의 비잔틴 전통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지 않고 있는 불가능한 현상을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보

여 주셨듯이 성모님도 처녀였지만 동정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은 불가능한 일을 하느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은 미래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예표로 하느님은 못 하시는 일도 없고, 불가능함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 주는 표징이라는 것이다.

동방의 신학자들은 호렙산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처녀성의 손상을 전혀 입지 않고 그리스도를 낳은 지극히 거룩한 테오토코스의 모습도 생각했다. 그래서 초기의 성화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 중앙에 거룩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육화 이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신 표징은 빛, 바람, 구름, 불 그리고 말씀이었다. 따라서 모세가 접한 모습도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길과 그 속에서 들리는 말씀(로고스)이었다.(탈출 3,4)

요한복음 첫 머리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문장이 나오듯이 이렇게 말씀이 인간이 되심, 즉 동정녀의 잉태를 이렇게 불길 속에 묘사하여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온 그 말씀,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방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변모 때에 보여주었던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묘사된 영광의 하느님의 실체를 거룩한 교부들과 공의회의 전통에 따라 모세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결코 꺾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의 신앙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음과 동일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동방 정교회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는 찬송가와

신학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3. 세 손의 성모(러-Богородица Тројеручица, 그-Παναγία Τριχερούσα)

이 형태의 이콘은 티츠빈의 성모 성화 유형의 하나로 아기 예수님이 티츠빈의 성모와 반대 방향으로 위치하며 성모님의 머리와 손 또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모님의 손이 세 개로 그려져 있다. 이 유형의 성모 성화는 8세기 초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에 관한 기적 사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717년경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은 칼리프 알-왈리드 1세의 고위 관료(Vizier)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짓된 반역의 죄로 고발당하여 손이 잘리는 형을 받았다. 당시 그는 비잔틴의 성화상 파괴론자 레오 이사우리안 황제의 정책에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기에 고발당했던 것이다. 이에 요한은 자신의 잘린 손을 들고 성모님의 이콘



▲ 세 손의 성모, 힐란다르 수도원

앞에서 기도를 바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만일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남은 생은 세속이 아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잘린 손은 다시 붙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팔목에는 붉은 선만이 흔적으로 남았다고 한다. 이후 요한은 이 기적적 치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으로 손 모양을 만들어 자신이 기

도했던 성화에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 이콘은 ‘세 손의 성모’라 불리게 되었고, 이 기적의 역사에 따라 성모님의 손을 세 개로 그리게 되었다.

이 기적이 있는 후 요한은 예루살렘 외곽의 성 사바 수도원의 수사가 되었고, 자신이 기도하며 기적을 얻었던 이 성모 성화를 그 수도 공동체에 봉헌했다. 그리고 이 성모 성화 앞에서 서약한 대로 자신의 뛰어난 문필력으로 성화상의 공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여 당시 비잔틴 제국 전역을 뒤흔들던 성화상 파괴 주의자들과 대적하였다.

그 후 이 성화는 다시금 그 수도원의 설립자 성 사바가 방문했을 때 누르시안 스타일의 다른 성모 성화와 함께 선물로 증정되었고, 사바는 자신이 거주하던 그리스 아토스의 성 힐란다르 수도원에 이 성화를 가져갔고, 이후 성 사바의 지팡이와 함께 거룩하게 보존되었다.

1347년까지 보존되던 이 성화는 세르비아의 Dušan(1308~1355)

왕이 성 힐란다르 수도원을 방문하고 세르비아로 가지고 가, 14세기 말 수투테니차 수도원 소유로 있다가 15세기 다시 힐란다르 수도원으로 되돌아갔다. 가장 최근까지도 이 성모 이콘은 선출된 원장 수사와 함께 힐란다르 수도원의 첫 번째 공식 원장으로 공경받고 있다. 이 이콘의 축일은 7월 11일(구력 6월 28일)과 7월 25일(구력 7월 12일)에 두 번 지낸다. 

◀ 힐란다르 수도원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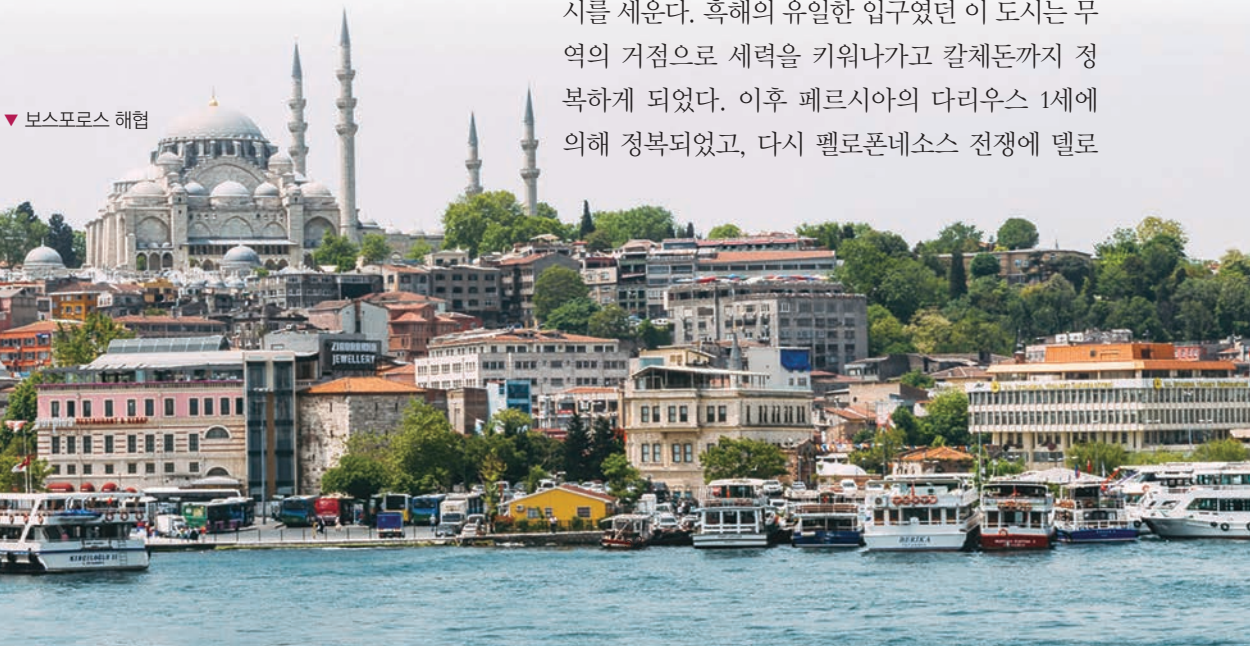


김원창 미카엘 / 성지순례 인솔자



▲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총대주교 주교좌 성당

기원전 7세기, 그리스 메가라의 왕자 뷔자스(혹은 뷔잔타스)가 새로운 도시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당시 가장 영험한 신탁을 내려주던 델포이 신전을 찾았다. 델포이에서 내려진 신탁은 ‘눈먼 자들 도시의 반대쪽’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탁을 가지고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고 보스포로스만과 마르마라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을 발견하는데, 그 반대편에는 이미 칼체돈이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천혜의 지형을 이용하지 못한 칼체돈이라는 도시가 바로 신탁에서 말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결론짓고 그 반대편 보스포로스 남쪽 해안의 끝자락에 자신의 이름을 딴 ‘뷔잔티온’이라는 도시를 세운다. 흑해의 유일한 입구였던 이 도시는 무역의 거점으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칼체돈까지 정복하게 되었다. 이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에 의해 정복되었고, 다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델로



▼ 보스포로스 해협



▲ 하기아 소피아 성당



▲ 하기아 소피아 성당 모자이크

스 동맹에 가입하면서 후일 여타 그리스 도시처럼 로마제국에 편입되었다. 한때 로마에 반기를 들어 황폐화되었으나,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밀라노 관용령을 내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로마’로서 도시를 재건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콘스탄티노폴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동로마제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 6세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별처럼 빛나는 동로마제국(비잔틴 제국)을 기념하기 위해 거룩한 소피아 성당을 세운다.

소피아 성당의 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의 반대편에서는 흉노족 일부가 유연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튀르크’(헝센, 방패라는 뜻)족이라 칭했고, 중국과 고구려의 역사에서는 그들을 돌궐이라 칭했다. 몽골 초원을 누비던 그들도 동튀르크와 서튀르크로 분열되었고 모두 당나라에게 멸망하게 된다. 당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튀르크 부족은 독립투쟁을 통해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당시 비잔틴제국과 당나라 사이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던 아바스 왕조와 연합하여 당나라를 견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튀르크족은 이슬람을 받아들여지고 후일 자연스럽게 아바스 왕조의 서쪽 평원지대인 오늘날의 터키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셀주크 튀르크이다. 셀주크 튀르크는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1453년에는 1000년을 지속했던 동로마제국의 콘스탄티노폴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어로 ‘도시를 향해’(어떤 장소를 탐내는 구호처럼 쓰이던 말)라는 뜻을 지닌 이스탄불을 건립한다. 그 이스탄불이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이다.



▲ 이스탄불 주교좌 성령성당 성 요한 금구 유해 일부

이처럼 이스탄불의 역사는 세계사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이라는 제국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그 맥을 견고하게 마주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로마를 중심에 둔 그리스도교의 문화에 대응하여 조금 다른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태어나 자라난 장소이며, 하나였던 그리스도교가 가톨릭과 정교회로 갈라진 장

소이기도 하다. 물론 교회가 가진 최상의 권위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서 나온다는 수위권의 문제와 ‘filioque논쟁’이라 불리는 복잡한 신학적 문제를 비롯해 몇 가지 관점에서 두 교회의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성사와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두 교회의 다른 점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들어보아도, 이 길고 거대한 역사를 전부 알기엔 순례 여정이 길지 않다. 바오로 사도의 선교여행을 따라 순례를 준비한 순례자들은 복잡한 역사 지식을 뒤로하고 먼저 이스탄불의 중심지 술탄 아흐메트 광장 한복판에 서게 된다. 그리고 보스포로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풍요로운 언덕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 벽돌로 세워진 돔 형식의 건물을 바라보며 아



▲ 블루모스크 기도시간

픔을 느낀다. 비잔틴제국 시절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막 완성된 성스러운 건물을 보며 솔로몬을 이겼노라고 되뇌었다는 이야기를 간직한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 성스러운 지혜의 성당을 뜻하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또는 아야 소피아)이다. 이 성당은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정사각형 평면 위에 펜던티브를 이용해 원형 돔 천장을 올린 첨단 기법이 적용되면서 가능한 천장의 무게를 줄여야 했고, 구조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로 40여 개의 높은 아치형 창문이 생겨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창문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서로 교차하면서 순례자들은 스스로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아름다움을 성당 내부로 끌어들이는 듯한 감동이다. 게다가 모든 천장과 벽면은 하느님께 봉헌한 아름답고 찬란한 황금색 모자이크 이콘으로 장식되어,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천상의 성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성당은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아쉽게도 올해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

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매우 슬프다.”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 함께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도 성당을 파괴하지 않고 황금색 모자이크 벽면에 회칠을 하였기에 그것을 벗겨내어 다시 같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면서도 모자이크 위에 다시 회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수백 년 동안 제대가 놓여 있었고 거룩한 성체가 모셔져 있었던 방향으로 깊은 절을 하고 다시 광장으로 나오면, 하기야 소피아 성당만큼이나 유명한 술탄 아흐메트 자미가 눈앞에 보인다. 17세기의 위대한 술탄이었던 아흐메트는 하리아 소피아 성당을 마주하고서 그만큼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을 짓기로 결정하고 첨탑을 황금(altun)으로 지으라고 명령했지만, 건축 설계자가 altun(여섯)로 잘못 알아들은 탓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개의 미나렛(이슬람 사원의 첨탑)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원은 크고 작은 260여 개의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벽면을 장식한 푸른색 도자기 타일과 만나며 발하는 빛의 색깔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하루에 다섯 번씩 그들이 믿는 유일신 알라에게 깊은 절로 신앙을 표하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순례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같은 하느님을 서로 다르게 고백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본다. 지나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신 하느님을, 세상은 왜 같은 마음과 동일한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진다.

보스포로스 해협 위를 유람하는 배에 오른 순례자들은 이스탄불 건너편 옛 칼체돈 지역을 바라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칼체돈 너머로 그 유명한 니케아도 위치해 있을 것이다. 그 두 지역은 한때 보편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이며, 그 두 공의회를 통해 작성되고 공인된 ‘니케아 콘스탄티노



▲ 히포드롬(오벨리스크와 청동기둥)

플 신경’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미사 전례 안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떠올린다. 1500년 넘게 사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함께 교회의 신앙을 지탱해온 그 신경을, 유람선 위에서 마음을 다해 되뇌어본다.

“나는 믿나이다… 창조주를… 하느님의 외아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배에서 내려 순례자들은 15세기에 완성된 오스만 제국의 톱카프 궁전을 둘러본다. 이제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궁전에는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세레자 요한의 두개골, 모세의 지팡이가 보존되어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 중에 더 위대한 이가 없다는 그분의 유해 일부분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흙에서 났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분 앞에서 한없이 미혹한 존재이

술탄 아흐메트 자미



▲ 코라 수도원 성당 천장 이콘

기에, 궁전을 떠나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톱카프 궁전을 장식한 수백 개릿의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더 깊이 새겨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동로마 제국의 지하 저수지였던 예레바탄 사라이, 그곳에서 메두사의 머리 모양으로 만든 기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올라와 한때 10만 명을 수용했던 히포드롬이 자리했던 장소로 이동한다. 텔피 신전에 있던 청동 뱀을 가져와 제단을 만들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 그리고 지금은 베네치아 성 마르코 성당 전면에 세워져 있는 4마리의 청동 말 장식을 떠올려본다. 어느 도시든 그중 하나만 가질 수 있었어도 전 세계의 순례자와 여행객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의 향기만이 물씬 풍기는 지금 이 장소에 그 모든 것이 자리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콘스탄티노플이자 이스탄불인 이 도시는 도대체 얼마나 위대했었던 것일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이슬람 국가인 이스탄불이지만, 이곳이 위대한 그리스도교 국가의 수도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이스탄불 외곽에 위치한 코라 구세주 수도원 성당을 순례한다. 작은 성당이지만 내부에 가득

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인해 순례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이다. 황금 바탕의 모자이크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우리보다 먼저 그분을 알고 따른 성인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경받아 마땅한 성모님의 모자이크에 순례자들의 눈길이 오래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니, 코라 구세주 성당에 오래 머무를수록 고개는 아프기 마련이다. 천장을 쳐다보는 일조차도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음 순례지로 서둘러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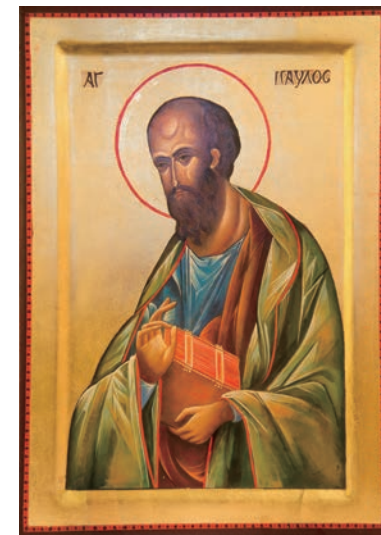
떠나는 순례자들은 아픈 목을 매만지며, 오직 두 손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성당의 천장과 벽면을 빈틈없이 채워냈을 그 시절의 신앙인들에게 잠시 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많은 여행자들과 섞여 다니던 순례자들은 좀더 한적한 장소를 찾아간다.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총대주교청이다. 정교회는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다양한 지역교회가 각기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각 정교회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함을 지닐 수도 있으며 서로의 교회에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 그러나 각 교회들 사이에는 충실한 협약과 교의가 있으며 성사적인 일치가 있다. 또한 실제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명예상의 권위를 가지는 교회가 있으니, 바로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인 터키의 한복판에 전 세계 정교회의 중심지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영예로움이 가능한 것은 옛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는 역사적인 위치와 역할 때문이다. 오늘날 대다수 정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이자 특별히 명예로운 위치를 가지고 3억 명이 넘는 정교회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로 널리 존중받는 세계 총대주교의 주

교좌성당이라 하기엔 작고 볼품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나 신자 수로 세상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향유 냄새로 가득한 성당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를 봉헌하고 그 기도의 마음으로 촛불을 하나 켜본다. 비록 그 촛불은 오래가지 않겠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하나의 전례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될 시간을 소망하는 마음은 아주 오래 간직될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이고 정교회의 명예상 본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톨릭교회 안에서 이스탄불 교구청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콘스탄티노플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중요하고 오래된 교구이며 지리적으로나 의미상으로도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

가 시작되는 중요한 요처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이스탄불교구는 엄밀히 말해서 교구가 아니라 대목구이다.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못한 교구로 교황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교구이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은 이스탄불 교황대리감목구이지만 편의상 이스탄불교구라고 부르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주신 성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도 이스탄불 대목구장으로 재직하시며 동방교회와의 유화 정책을 펴신 바 있고 그 정신이 공의회에서도 반영되었다. 주교좌성당은 성령께 봉헌되었으므로 성령성당이라고 불린다. 길가에서는 성당이 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건물 사이에 흰색의 성당 출입문이 자리하고 있다. 작은 성당 마당을 지나면 적당한 크기의 성당을 만날 수 있다. 오순절 사건을 기념한 중앙 제단화 아래 무릎을 꿇고 요한 금구 성인의 성해함



▲ 사도 바오로 이콘

에 친구로 경의를 표한다. 순례를 시작하는 지금이 순간부터 다시 마지막 날에 찾아낼 그 순간까지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터키로 떠나는 순례자들의 목적은 대부분 바오로의 발자국을 따르기 위함이다. 여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회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승복하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복음 전파에 쏟아 부은 분이다. 바오로 사도의 길을 따라 수천 km를 이동하는 터키의 순례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순례자들에게 이스탄불의 시간은 특별하다. 수없는 역사와 사건이 교차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000년 전 바오로 사도처럼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에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3-16)

인터뷰

직장사목팀

인터뷰 : 백충렬 요셉 신부 대담 · 정리: 최태교 안드레아 편집위원



▲ 가톨릭직장인 2020년 10월 표지사진

❖ 직장사목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직장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일치와 조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뇌합니다. 그 문제해결은 일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에 보편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을 이루는 직장 교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여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 직장사목팀입니다.

현재 정부부처 및 기관, 서울시 공무원, 은행,

증권, 개별 기업체 등 60여 개의 직장공동체가 등록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장은 우리 자신이 비록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그곳은 그래서 하느님을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내 삶 속에 녹아 있는 하느님의 체취를 발견하고 내게 익숙한 곳에서 낯익은 하느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인 공동체원들이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과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나눔'이라는 관계를 통해 의미를 체험하는 구조를 지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직장 안에 형성된 교우회는 신앙의 눈으로 삶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며, 의미 체험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 안에 교우회를 형성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 직장사목팀의 조직과 주요 활동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직장사목팀의 주요 활동은 성무활동, 교육활동, 연례활동, 문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성무활동은 직장공동체의 요청에 따라 직장 내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직장 방문 미사, 명동 주변 직장인을 위한 매주 금요 미사(매주 금요일 12시 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직장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직장 사목방문이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교리교사들이 직접 직장을 방문하여 교육하고, 직장인 선교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세례성사 교리교육과 신자 재교육과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 및 견진성사 교리교육, 각 교우회 전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미사 전례에 관한 교육을 하는 전례 교육이 있습니다. 연례활동으로는 직장공동체 연합으로 연 2회(3월, 11월) 실시하는 연례 피정과 직장공동체 연합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국내 및 해외 성지순례가 있으며, 문화활동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는 교우들에게 영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나눔지인 월간『가톨릭직장인』 발행, 직장사목팀에서 발간되는 자료들 즉 가톨릭직장인 모임교재, 신앙인을 위한 미사해설서 등 서적 발행이 있습니다.

산하 조직과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직장인성가단 발표회



▲ 2019 가을 피정



▲ 2019 세례

구 분	내 용
임원회	직장사목팀과 직장공동체 간의 유대 강화와 사목적 연대를 위한 조직으로 연 1회 모임이 있으며 지역별 모임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직장인 편집부	월보 가톨릭 직장인 내 편집, 기획을 연구하는 봉사자 모임으로 월 1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미사 전례단	매주 금요일 12시 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에서 봉헌되는 직장인 금요미사의 해설, 독서, 반주 봉사자 모임입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02-727-2078로 연락 바랍니다.
AESTUS 성가단	가톨릭 신자들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사 전례 봉사와 개인별 신앙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02-727-2078로 연락 바랍니다.
울뜨레아	지치지 않는 열정과 믿음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교우회의 활성화와 교우들 간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꾸르실로 수료자에게만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시 교우 협의회	동일 직종의 직장공동체가 공유한 협의체를 형성, 직종에 맞는 고유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영성을 찾고 친교를 쌓아 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경당	선수들의 신앙심 고취를 통하여 정신력, 운동력의 함양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되는 선수촌 경당과 국회 경당이 있습니다.

❖ **직장 교우회의 의의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장 교우회 모임은 인간의 조직 그 무엇을 넘

어선 공동체이기에 그 안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에 직장 교우회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은 '말씀 중심의 삶'과 '공동체의 활동'입니다.

먼저 직장의 여건상 빈번한 성찬 전례의 거행이 쉽지 않기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묵상과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성서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러한 삶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체험'이라는 구조를 통해서만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봉사나 여타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라는 의미의 체험이나 '나눔'이라는 자기실현은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우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곳의 본당에 소속된 신자입니다. 따라서 직장사목팀은 직장 교우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각 본당은 거주지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모든 사목활동이 각 가정에 집중됩니다. 이에 보편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을 이루는 직장 교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여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 바로 직장사목팀입니다.

각 직장 교우회는 그 자체로 고유한 '신자공동체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결성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직장의 상황에 따른 모임 공간 확보와 교우들을 결속시키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마련되었다면 직장사목팀과의 협의를 통해 직장 교우회를 발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신도 직장인 공동체가 직장사목팀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교우회 창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교우회 창립

1 교우회 창립 준비	• 먼저 뜻 있는 몇 분이 모여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 준비 작업은 직장 내 교우 현황을 파악(인사카드, 탐문 등)합니다. •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전체모임을 추천합니다.
2 창립준비 전체회의	• 전체모임에서는 왜 이 모임을 하려고 하는가 등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 창립준비 모임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3 세부활동 논의	• 왜 교우회를 결성하려고 하는가? • 교우회가 직장 내의 다른 동아리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 주변의 다른 교우회나 종교 모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모임은 앞으로 어떻게 가질 것인가? •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예) 복음나누기, 봉사활동, 성지순례, 사회복지기관 돕기 등
4 직장사목팀 등록	• 직장사목팀 홈페이지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해서 등록합니다. (직장사목팀 홈페이지: http://www.catholicworkers.or.kr/) • 서울대교구 사목국 직장사목팀은 서울교구 내의 직장만을 담당합니다. 타 교구에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구의 재가를 받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직장사목팀과 창립 미사 협의	• 직장사목팀과 연락, 창립미사 일정을 잡습니다. • 주소: 서울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 전화: 02-727-2078 / 02-727-2080 010-9109-2078 / Fax: 02-753-3792 • E-mail: gikjang@catholic.or.kr

❖ **사목자로서 평신도 특히 직장인 교우와 나누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첫째, “누구든 부담 없이 편하게 오세요”입니다.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오랜 냉담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 오셔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교우회에 나오시면 교우들과의 만남이 수평으로 이루어지고 사목자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사목자와 나눈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 직장 교우회에 나오시면 사목자와 미사 봉헌과 친교 등을 통해 마음이 많이 열려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 자신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 2019 서울시교우협의회



▲ 직장인 금요 미사

주보성인과 나 로사리아



현석영 로사리아 / 동관교성당

▲ 2019 송년 미사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리가 마련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와서 보시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무감, 죄의식 등 불편한 마음을 갖기보다 그냥 찾아와 보는 것만으로 그동안 끊어졌던 신앙생활, 멀어졌던 신앙심에 작은 불씨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신앙인 공동체의 힘입니다.

직장 교우회는 삭막한 직장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복음화의 염원을 채우고자 했던 교우들이 스스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내 직장 안에 있는 신앙인 공동체는 끈끈하고 따뜻한 유대를 주고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직장 내 신앙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직장 교우회 미사에서 미사 지향은 교우를 위해, 비신자와 회사의 성화를 위해, 일의 성화를 위해 봉헌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특히 힘들 때 그 일이 귀한 일이라는 점을 잊기 쉬운데

자신이 하는 일이 생계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과의 일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깨닫도록 일터, 직장에서 자리는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제단과 제대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임을 알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미사를 봉헌하는 거룩함과 같게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사목팀 사목자는 스스로 ‘선교사’로서 사목합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교우들을 찾아 혼신의 사랑으로 애쓰셨듯이, 저희도 미사 보파리를 짊어지고 어디든 가서 직장인들에게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열매 맺기도, 활성화하기도 쉽지 않기에 꾸준한 열정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 찬미 예수님!

‘나는 왜 세례명을 로사리아로 정했을까?’

‘로사리아 성녀는 누구일까?’

‘주보성인과 나’ 원고를 쓰며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세례 축복을 받은 지 38년이 지나도록 내 세례명의 성인에 대해 잘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글을 쓰기까지 로살리아와 로사리아를 동명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흔하기도 해서 원고를 마무리하다가 세례명을 검색하였습니다. 로살리아와 로사리아는 완전 다른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의 애칭이 로사리아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로사리아라는 세례명을 선택한 것은 요즘 레지오 활동으로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주신 축복이었네요. 뒤늦게 바른 세례명을 찾게 된 것은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973년 고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날에 처음으로 성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혼자 성당을 다니

던 중학생 동생이 성탄 자정미사를 참여하고 싶은데 밤길이 무섭다며

“언니 같이 가줄래?”

하는 부탁에 무심코 함께한 그 길에서 저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리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차서 탄생 축하의 잔치를 열지?’ 성탄 자정의 미사 시간은 이제껏 전혀 몰랐던 새로운 감동의 세계였습니다. 그 후로 늘 마음 한편에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천주교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과 취직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1982년 자발적으로 명동성당을 찾아가 예비자 교리학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리반 선생님께서 본받고 싶은 성인이나 자신의 생일과 같은 날의 성인을 찾아보라는데, 맞춰지는 세례명이 없었습니다. 세례식을 하기로 예정된 날짜에 맞춰 9월, 10월의 성녀를 찾아보다가 ‘로사리아’라는 예쁜 이름이 눈에 들어 세례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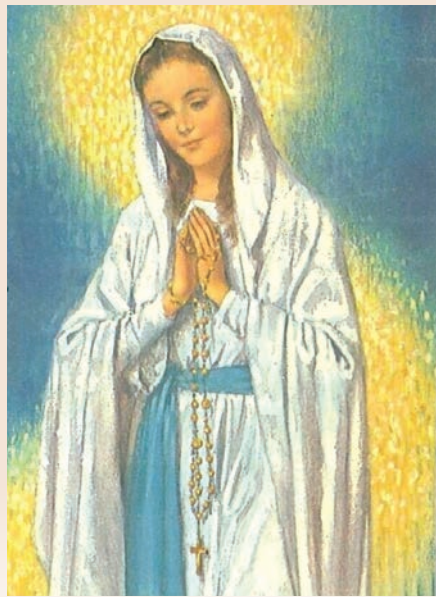
“저의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누구의 권면도 없이 스스로 찾아가서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생활은 그저 말뿐. 하느님의 말씀이나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무지와 교만 속에서도 주님은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우자에게 권면 성사까지는 받도록 했지만 세례로 이끌지는 못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1987년 신혼 초에 문경새재로 겨울 여행을 갔습니다. 굽이굽이 이화령 고갯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운전기사가 졸아 버스는 수십 미터 아래로 굴렀습니다. 여러 명의 사망자까지 나오고, TV뉴스 속보로 자막이 뜨는 큰 사고였습니다. 버스가 중간 중간 바위에 부딪히며 승객들이 튕겨져 눈발 위에 또는 나무 위로 굴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부는 부상 중에도 어떤 힘에 의해 스스로 걸어 올라가 제일 먼저 구조를 받았습니다. 피투성이 속에서도 수없이 하느님을 찾으며 감사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1992년 사순시기, 회사 일이 힘든 가운데도 즐겁다며 지내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 이틀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세례명 요셉으로 대세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던 3개월 동안, 저는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병원 뒤 성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남편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애로 왼쪽 마비 상태이긴 하지만 꾸준한 감사기도와 투병 끝에 3년 후 정식 세례를 받는 은총도 받았답니다. 그 뒤에 아들도 첫영성체를 받고, 한 동안 가족이 열심히 주일 미사를 다녔습니다.



▲ 로사리아

말씀과 기도, 이웃 사랑의 실천을 모르는 신앙은 오랜 기간 냉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는 말뿐인 장식용 신자로 주일 미사만 드리는 생활과 냉담으로 들락날락거리며 지내오다 교직의 길을 떠난 2016년에서야 교사가 아닌 어린이로 주님의 학교에 발을 다시 디딜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동판교 성당’ 바다의 별꾸리아 ‘착한 의견의 어머니 Pr.’ 레지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묵주기도(로사리오

기도)를 통해 하느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알게 해 주시고, 소공동체 반모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함 많은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하며 늘 깨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나의 선택 교만함에 뒤로 미룬 영세는
주님 미리 선택하신 사랑손길 축복임을
이제사 뒤늦은 깨달음 기쁨의 날들이라.

일상은 감사의 날 어린이 마음가짐
좋은 날만 바라느냐 고통 와도 헤쳐가길
모후이신 성모님 순종 때마다 새기리라.

불쑥불쑥 드나드는 게으름의 유혹을
이 어찌 끊지 못해 주님 뜻 거스르나
때마다 간절한 기도, 말씀 실천 이어가리.

배움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피어라, 신앙의 꽃”

글 · 홍희기 미카엘라 / 서울대교구 성미술담당

지난 9월은 순교자들의 굳은 신앙을 본받고 순교 정신을 이어받고자 힘쓰는 달로 지정된 순교자 성월이었다. 올해는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의 개별 초상화를 모두 완성하여 한자리에 모신 특별한 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화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어느 해보다 은총 가득한 시간이었다.

“피어라, 신앙의 꽃”을 주제로 기획된 이 전시가 코로나 19라는 역병의 암울한 위기 속에서도 9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3,4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의 방문 기록을 남겼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103위 성인화 제작 추진 배경과 과정

한국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나라이다. 신분제가 엄격한 폐쇄적인 봉건사회에서 오직 문헌을 통한 학문적 접근으로 시작된 천주교는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에 뿌리를 두고 교세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성리학 외 타 학문 배제라는 방침과 정치적 파란으로 야기된 크고 작은 박해가 100여 년에 걸쳐 일어났다. 1791년(정조 15년)에 일어난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신유박해(1801, 순조 원년), 기해박해(1839, 헌종 5년), 병오박해(1846, 헌종 12년), 병인박해(1866, 고종 3년)로 이어지는 4차례의 대박해를 통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무명(無名) 순교자를 포함한 그 수가 5천~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839년,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의 기해박해 보고서 작성으로 시작된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 조사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교황청의 수속을 밟아 시복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한 한국 순교 성인 103위가 1984년 방한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되었다. 그때에는 시성되기 전에 제작된 '103위 복자화'(문화진 작, 1977년, 서울대교구 회화동성당 소장)만 있었을 뿐 개별 초상화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역시 제작 당시 '복자화'였기에 성인의 상징인 후광이 없다. 이후 김대건 신부, 정하상 바오로 등 40여 위의 초상화가 제작되었으나 나머지 성인들의 개별 초상화는 없었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순교자들을 통한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순교 영성을 신자들의 생활 안에 구현할 방안으로 각 교구의 103위 성인 초상화 소장 현황을 조사해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103위 성인 개별 초상화의 제작을 건의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017년 2월 20일 회의를 통해 문화예술위원회에 103위 성인 초상화 제작 추진을 요청했다. 이후 2017년 5월,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에 성인화 제작에 대한 자문을 구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성인 초상화 제작과 소장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 뒤 성인 63위의 초상화 제작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제작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교구에 문화예술위원장 장봉훈 주교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 작가를 모집했다. 2018년 1월 31일까지 98명의 작가가 각 교구 미술가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했고, 운영위원회는 2월 9일 작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성인화를 제작할 작가 63명을 선정, 위촉했다.

2018년 2월 22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 103위 순교 성인 초상화 제작자 워크숍'을 열어 작가들에게 제작 지침을 교육한 뒤, 스케치, 채색 등 주요 단계마다 촬영본을 접수하고 수

정의견을 교환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5위가 추가되었고, 2018년 12월 20일에는 채색된 작품들을 검토해 인준·조건부 인준·비인준으로 분류한 뒤, 인준·조건부 인준된 작품은 수정, 비인준된 12점의 작품은 재제작에 착수했다. 2019년 6월, 68위의 성인화가 1차로 완성되었으며, 2인이나 3인으로 함께 그려져 있는 9위 성인들을 개별 초상화로 분리하는 추가 작업을 함으로써, 2020년 6월에 최종 50명의 작가에 의한 77위의 성인화가 완성되었다.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시 현황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전국의 성당, 성지가 소장한 26위 성인화 원본을 대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영인본을 제작해 새로 제작한 77위와 함께 103위 성인화 모두를 한자리에 모셨다. 그러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성인 10위의 영인본의 경우 후광이 없는 복자화였음을 재확인하고 성인화의 추가제작에 대한 과업을 남겼다.

103위 성인 중에는 가족 순교자들이 많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그의 아버지 성 김제준 이나시오,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의 모친 성녀 유소사 체칠리아, 그의 동생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을 비롯하여 모녀 순교자(성녀 이 가타리나, 성녀 조



막달레나, 부부 순교자(성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녀 권희 바르바라), 형제 순교자(성 홍병주 베드로, 성 홍영주 바오로), 자매 순교자(성녀 김효주 아녜스, 성녀 김효임 골룸바), 장인과 사위 순교자(성 최창흠 베드로, 성 조신철 가롤로), 남매 순교자(성녀 현경련 베네딕타, 성 현석문 가롤로)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는 성인들의 초상화를 원칙적으로 박해시기에 따른 순교 순서대로 배열하되 가족이나 친지 관계의 성인들을 함께 배열해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전시회 도록과 패널에는 성인들의 행적 요약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적어, 외국인들도 성인들과 한국천주교 교회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비매품으로 제공된 도록의 수





량 부족으로 관련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관람객들에게는 배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르던 이전의 사례와는 분명 달랐다. 응답자 612명의 설문 분석 결과, 지인(知人)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관람객이 75%가 넘었다. 어떤 이들은 103위 성인화에 대해 호칭기도를 하며 기도 매체로 접근하였으며, 대부분 한국 성인들의 순교 정신에 감동받았다. 특히 1839년 기해박해 때 15세의 어린 나이에 순교한 성녀 이 바르바라를 비롯해 최연소 순교자인 13세의 성 유대철 베드로의 초상(肖像) 앞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대부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103위 성인화 전시가 오랜 기간 지속되기를 바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다. 차후 순교박물관의 순례 전시 또는 도록 형태의 기도문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다.

103위 성인화 특별전의 의미

성인 공경은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다. 103위 시성 청원인 윤민구 신부는 한국교회가 보여준 특출한 네 가지 덕행으로 순교 정신, 평신도 사도

직에 자발적 참여, 사랑의 생활을 통한 증거, 교회에 대한 투철한 충성을 들고 있다. 103위 성인의 신앙은 가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을 배우고 습득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 역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신자들을 이끌었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가 신유박해 이후 약 30년 동안이나 신자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회 재건 운동을 펼쳤고,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103위 순교 성인이 죽음으로 지킨 신앙을 계승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순교 정신을 실천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일상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 103위 순교성인화 특별전 도록
(20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사진제공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사진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혹시 나의 양을 보았나요



박혜원 소피아 /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평신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혜원 소피아이고 미술인으로 서울가톨릭미술가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혹시 나의 양을 보았나요』라는 저의 책이 출간되어 이번 겨울호에서는 본 책에서 소개하는 ‘어여쁜 양’ 그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양’은 그냥 양이기도 하면서 ‘천주의 어린양’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미술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 성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행복한 마음의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책에서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서양미술사 속에 얼마나 많은 숨겨진 보석들이 많은지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2019년 봄, 나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대도시 툴루즈(Toulouse)를 처음 방문하고 이 지역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프랑스 남부에 여러 번 왔지만, 니스(Nice)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지역은 처음이다.

툴루즈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 지 어느덧 일주일째, 이곳에서 마지막 하루인 다음 날은 인근의 아름다운 성채도시 카르카손(Carcassonne)을 방문하기로 아껴두고 여유롭게 툴루즈 시내를 둘러보던 중, 한 작은 뮤지엄숍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엽서를 발견했다. 타피스트리 작품으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



▲ 「만발한 들판」(Plein champ), 1970년, 돔 로베르, 타피스트리 양모, 면, 제작:오뷔송 구벨라-라 보즈 공방(Aubusson Goubely, La Beauze), 260×470cm, 소레즈 돔 로베르 미술관, 프랑스

된 들판의 모습이었다. 미술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는 작은 마을 소레즈(Sorèze)에 있는 돔 로베르 미술관(Musée Dom Robert)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돔 로베르(Dom Robert, 1907~1997)의 작품은 예전에 본 적이 있지만 그의 미술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 결국 카르카손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내 마음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작은 마을 소레즈에 도착, 일명 ‘수도원-학교, 돔 로베르 미술관’(Abbaye-école de Sorèze, Musée Dom Robert)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곳에 이르렀다. 1776년 루이 16세가 세운 12개의 왕립군사학교 중 하나로 프랑스 각지의 최고 엘리트를 양성한 학교였고 이곳에 돔 로베르 미술관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작가 돔 로베르는 베네딕토회 수사 화가이다. 입회 후 계속 그림을 그리던 그는 1941년 그 유명한 아시 성당의 타피스트리를 제작한 장

뤼르사(Jean Lurçat, 1892~1966)를 만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예술적 삶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돔 로베르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과 묘사력을 감지한 뤼르사는 이 같은 특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타피스트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고, 프랑스 중부에 있는 타피스트리의 메카 오뷔송(Aubusson)의 타바르 공방(Atelier Tabard)을 소개시켜 준다. 타피스트리는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회화와 달리 화가가 도안을 그리면 이를 타피스트리 직조 장인들이 제작해야 하는 협업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작업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중세시대부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예술 장르인 타피스트리는 날실과 씨실이 교차하며 촘촘하게 직조되어 놀라운 밀도감을 빚으며 이미지에 고유의 힘을 부여해준다. 또한 양모와 면으로 짠 것이라 특유의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역시 빼놓을 없는 중요한 매력이자 특징이다. 그는 말했다.

“가장 견고한 것, 영원한 것은 바로 자연이다. 나는 오직 자연만을 믿어 왔고, 자연에서 위안을 얻었다.”

내가 돔 로베르 작품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은 자신이 수사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교 주제의 작품이 드물고 그저 시골 들판에 펼쳐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 주제에 제한된 시점이 아니라 활짝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열려 있음’, ‘자유로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는 단연 나만이 아니라 ‘열린 교회’를 외치는 현대인의 감성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의 작품은 종교의 틀을 넘어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그에게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인 자연의 미세한 아름다움의 털끝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집요함이 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작은 들풀, 그 주위를 나는 나비 그리고 풀을 뜯는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똑같은 섬세함으로 묘사되었다.

그에게 자연은 ‘지나간 것’, 즉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즉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자연의 모든 창조물이 고유의 고귀한 존재감을 갖고 있어 어느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시선의 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 그에게 자연은 인간의 인식을 초월해 있고 황홀한 모습으로 빛나는 ‘넘을 수 없는 수평선’이다. 그가 꿈속 어릴 적 뛰놀던 언덕, 바로 에텐동산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만발한 들판」(Plein champ, 1970)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뚜렷한 목표 없이 들에 나가 산책 중에 마주치는 것들을 그린다. 전원의 양, 염소, 말, 닭, 양귀비, 민들레 등. 그리고 작업실에 돌아와 다음 산책 때 놓친 것을 보충한다.”

어느 한순간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연의 단

면을 포착하여 그린 다음 계속 보충하며 소중한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진지한 자세가 깊은 인상을 준다.

‘만발한 들판’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작품인데, 제목 역시 특별한 이중적 의미를 품고 있다. 지상의 온갖 생명체가 ‘만발한 들판’이라는 뜻이자 영어로 ‘plain chant’(플레인 찬트), 즉 ‘그레고리안 찬가’(Gregorian chant)를 일컫는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기 넘치는 자연이 하느님께 바치는 색채의 찬가, 한평생 축복을 가득 머금은 태양, 빛, 온기를 쫓은 돔 로베르의 진심 어린 기도이다. 작품 어느 부분을 떼어 보아도 하나 같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연의 단면을 보여주어 끝없이 감탄하며 화면 안으로 빠져든다. 수풀 뒤에 숨어있는 수탉, 붉은 양귀비 위를 나는 호랑나비…….

앗!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타피스트리 좌측 상단에 바로 내가 로카마두르 들판에서 만난 양이 있었다! 갑작스런 침입자의 등장에 깜짝 놀라 쳐다보던 바로 그 양이다. 내 마음을 온통 뒤흔들 어놓은 그 양이 이 작은 시골마을 소레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신간: 『혹시 나의 양을 보았나요』(프랑스 예술기행),

2020년 10월, 박혜원 저, 청색종이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리오 개프니 지음 / 김성웅 옮김 / 생활성서사 / 148×210 / 232쪽 / 13,000원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이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머지 한쪽은 듣기만 해야 한다면, 허무함과 쓸쓸함이 찾아온다. 하느님과 대화 역시 그러하다. 이 책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더욱 어른스러운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 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읽기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두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곧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며 깊이 머무는 법을 알려 주는 ‘성경 묵상 기도’ 안내서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를 이끈다.



구도 시인 구상 평전

이승원 지음 / 분도출판사 / 135×200 / 324쪽 / 20,000원

구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나온 평전으로 85년 삶을 복원했다. 구상은 사제가 되는 길을 밟기도 했고, 기자로서 사회정의에 투신했으며, 6·25 전쟁 때는 종군작가로 활동했고, 전후에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주의에 천착한 시를 썼다. 초지일관 구도의 길을 모색해온 그의 삶은 가톨릭 평신도들에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감을 준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박현동 아바스는 다음과 같은 글로 일독을 권했다. “영원의 세계를 갈망하던 시인은 비극적 현실을 초월한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초토(焦土)에서 다시 생명이 피어나기 바라던 시인의 소망은 그리스도교 영성을 관통하여 가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 주저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

A J 크로닌 지음 / 이승우 옮김 / 바오로딸 / 125×185 / 672쪽 / 16,000원

다시 읽고 싶은 명작 중 으뜸으로 바오로딸이 최근 새롭게 출간했다. 참다운 인간애와 종교에 대한 보편적 시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스코틀랜드의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일생을 심도 있게 그려낸 이야기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내고 사제의 길을 택하기까지의 과정과 주위의 오해와 멸시 속에서도 강직한 성격과 성실함으로 중국 벽지에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병원지기 유쾌한 씨

조성연 지음 / 성바오로 / 128×188 / 224쪽 / 13,000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옆집에 사는 성인들’ ‘담 너머 성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가까이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저자 조성연 하늘병원 원장은 의사 신자로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랑을 불러내며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가볍고 재미있지만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툭툭 튀겨져 나오는 사건 안에 깃든 ‘사랑의 송가’이다. 남편이며 아버지며 아들인 한 남자가 어떻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지켜내며 봉사의 길을 펼쳐 가는지 잔잔한 미소로 책장을 넘기게 한다.



지친 하루의 깨달음

안셀름 그런 지음 / 신동한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40×205 / 196쪽 / 13,000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입 밖으로 ‘죽겠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만큼 지쳐 버렸다. 잠이라도 푹 자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그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로감에 갇히려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피로를 체험하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며,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피로의 모습들을 관찰하여 피곤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안셀름 그런 신부가 상담하며 얻은 여러 사례와 자신이 직접 겪은 피로에 관한 경험담을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부들의 사회교리

최원오 지음 / 분도출판사 / 150×225 / 208쪽 / 18,000원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가르치고 호소해 온 교부들의 가르침과 저자의 명쾌한 해설이 짝을 이룬 책이다. 사회교리를 현대 교황들의 특정 회칙이나 교황청 문헌 등에만 한정하는 것은 2천 년 그리스도교의 ‘거룩한 전통’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다. 비록 번듯한 짜임새는 없지만 교부 문헌에는 교부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 속에서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뵈고, 그들과 연대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기 위해 헌신했던 교부들의 치열한 성찰과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회장단,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에 관한 성명서 발표 통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환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지난 9월 11일 한국평협 회장단 및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경희) 상임위원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9월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를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여 마련됐으며,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인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에 관한 한국평협 성명서'를 함께 검토하고 발표를 결정했다.

한국평협이 발표한 성명서는 인간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 시작되며, 이 생명이 마지막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이 낙태 대신에 출산 선택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함을 밝힌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뜻있게 지내기 위한 기념사업에 대해 나누고, 특히 변화와 쇄신, 회복을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준비하기로 하고 실천사항을 정리하여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한국평협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과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하는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활동 등 한국평협 하반기 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이창훈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이 포괄

적 차별금지법안 관련 경과와 교회 입장에 관해 설명했다. 이 소장은 “교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지만, 이 법안은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고 있다.”라면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성적지향, 동성애는 윤리적 무질서에 속한다고 보기에, 가톨릭 신자로서 이 법안의 윤리적 문제를 잘 살피고 꾸준한 관심을 갖기를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서울대교구 시상식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지난 7월 29일, 서울대교구청 총대리주교실에서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시상식을 열고, 수상 본당에 상금과 상장을 전달했다.

한국평협과 가톨릭굿뉴스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에 걸쳐 진행한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시상식을 교구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평협은 서울대교구 수상 본당인 중앙동성당(교구 1위), 양원성당(특별상)과 더불어 많은 신자가 함께 참여한 교구 본당에 추가 시상하여, 교구 2위 길음동성당과 3위 이문동성당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협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뜻깊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경 쓰기에 참여하고, 특히 하느님 말씀을 자판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새겨서 말씀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구 1위 중앙동성당의 대표수상자로 참석한 김홍섭 요셉 사목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신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복음 쓰기는 서로를 연결해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교구 2위 이문동성당 윤영선 로마 사목회장은 “교우들이 온라인에서 소통을 나누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특별히 이번 이벤트는 전국의 여러 성당들을 많이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별상을 수상한 양원성당 김진국 힐라리오 총회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와 신축공사로 많이 지쳐있던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이번 특별상 수상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뚝뚝 뭉쳐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수상 본당 대표자들은 앞으로도 본당 신자들과 함께 모바일 복음 쓰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자랑스런 본당 평신도 신청접수 마감

춘천평협은 지난해 '자랑스런 평신도'를 3명 발굴한 데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 총 3개년 사업 중 2차 연도인 올해는 본당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 8월 30일 신청접수 마감 결과 총 8개 본당에서 16명의 대상자가 추천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자랑스런 평신도발굴위원회(위원장: 김일환 라파엘 평협 부회장)는 본당의 발굴 요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연수회를 실시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또한 교구의 원로사제들을 방문 면담하여 그분들이 기억하는 자랑스런 평신도들을 추천받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복음화위원회 출범

춘천평협은 지난 9월 26일 제1차 복음화위원회(위원장: 김영숙 미카엘라 평협 부회장)를 개최하였다. 12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코로나 19로 교구 미사 참여자수가 지난해 대비 45%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복음화위원회는 앞으로 교구사목국과 사목연구부와 공동으로 코로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미사참여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동영상 자료를 제작·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의 냉담자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 제12회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 행사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임용순 그레고리오, 이하 춘천평협)는 지난 10월 9일 제12회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 행사를 실시했다. 이 길은 6·25 순교자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가 이북에서 남하하는 수도자와 교우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하여 직접



개발한 길이다.

춘천교구는 이광재 신부가 순교한 10월 9일을 '교구 사제 추념의 날'로 정하고, 매년 춘천평협과 양양성당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도보순례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춘천평협 임원 30명만이 교구 교우들을 대표하여 도보순례에 참여하면서 이광재 신부의 순교 정신을 되새겼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지구회장단 및 평단협 상임위원 워크숍' 실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맹동술 시몬)는 지난 9월 19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지구회장단 및 평단협 상임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목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은,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며 지구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기울인 노력, 어려웠던 점,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행사 당일 사례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일상중심의 신앙실천 방법, 소외된 신자 층에 대한 접근법, 생태문제, 본당 재정 문제에 대해 조별 토의시간도 가졌다. 공동체 모임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범적인 사례들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가위 위령미사



조상들을 잊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는 한가위 위령미사가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황규

철 베드로, 담당 사제 김일희 빈첸시오) 주관으로 지난 9월 30일 마전 묘원, 백석 하늘의 문 묘원, 10월 1일 포동 묘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봉헌되었다.

마전 묘원에서 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코로나 19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힘든 요즘은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의 사랑을 잊기 쉽다."라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본질을 바라보면 탐욕을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시간, 백석 하늘의 문 묘원에서는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이 신부는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능하다."라며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이웃도 찾아보아야 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의 졸업장에서 사랑 성적표만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며 "현재 나의 사랑 성적표는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자."고 전하였다.

● 사제수품 25주년 은경축 기념미사



10월 8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인천평협 주관으로

교구장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교구민이 모인 가운데 사제수품 25주년을 기념하는 은경축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은경축을 맞으신 분은 김선호 루카 신부(가톨릭음악원장), 정연섭 베드로 신부(성 클라라수도회 영성지도), 김승욱 베드로 신부(계산동 본당 주임), 이봉영 요한 세례자 신부(역곡2동 본당 주임), 최형호 루카 신부(작전동 본당 주임) 등 다섯 분이다.

미사 중 은경축을 맞이한 사제들에게 정 주교가 기념 영대를 수여했고, 평협 류도선 프란치스코 부회장과 한영옥 실비아 여성부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증정했다. 축사에서 정 주교는 "지난 25년 동안 교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봉헌식



원주교구는 지난 8월 15일 배론성지에서, 조규만 바실리오 교구장을 비롯하여 교구 사제, 신자들이 수

년간 정성을 들인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봉헌식을 가졌다.

3월 예정이었던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상당 부분 축소를 하였고, 원주 및 제천 지역의 내외분과 타 교구 교구장, 사제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장승기 베드로)는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위한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며 원활한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탰다.

● 기도생활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원주평협과 복음화 사목국은 10월부터 12월까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서 얻은 소중한 체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원주교구 신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2021년 1월 정기총회 때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나뉘며, 원주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가 시상한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의정부평협 운영위원회 연수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사제 이재화 안셀모, 회장 김용무 미카엘)는 지난 9월 25일 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하루 동안 진행된 연수에서 2021년 의정부평협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을 나누고 2020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코로나 19 극복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시상식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지도신부 권지호 프란치스코, 회장 최재석 사도 요한)는 지난 8월 1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코로나 19 극복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평협 회장 인사, 시상식, 전국 1위를 수상한 이기대성당 및 개인 1위를 수상한 장산성당 이베네딕타 자매의 소감 발표,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의 격려사,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손 주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본당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끌어낸 코로나가 만든 선물이다."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22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구창서 레오)는 9월 26일 임원진 20명만 참가한 가운데 연풍순교성지



를 도보순례했다. 청주교구는 교구의 성지인 연풍성지와 배티성지, 그리고 새롭게 개발될 멩에묵성지를 번갈아 가며 평신도 도보성지순례를 하였으며 평균 2000명 내외의 신자들이 참여하였던 청주평협 주관의 대규모 행사였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성지순례 개최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행사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금년 새로 부임한 교구평협 담당 사제 최문석 교구 선교사목국장 신부의 제안에 따라 각 본당의 기도지향을 미리 받아 이를 교구평협 임원들이 대신 성지순례를 해주는 방식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장미 꽃송이와 교구 내 79개 본당과 교구청에서 받은 기도 지향을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연풍성지 일대를 순례하였으며 최문석 신부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79개 본당과 교구청의 기도 지향을 봉헌하는 것으로 순교자 성월 순례를 마무리하였다.

청주평협 구창서 회장은 "본당 회장님들이 보내주신 기도가 하느님께 닿아서 코로나 정국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 신자들이 안정과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 조금 더 견디고 본당 회장님들이 앞장서서 본당 신앙공동체를 활기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문석 신부는 강론 중에 "우리 교구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두 달간 미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미사가 중단되었다고 우리 신앙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이 시련 후에 우리 스스로 작은 예수가 되어 복음의 삶, 나눔의 삶, 부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러운 선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마산교구 시상식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백균철 바오로)는 지난 7월 31일 교구청 총대리(최봉원 야고보 신부) 집무실에서 한국평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한국평협에서 주관한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대회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흠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취지로 마련되었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는 7월 10일까지(40일간) 마감하여, 전국 1,186개 본당에서 총 14,753명이 참여



하였다. 교구에서는 38개 본당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특별상은 생림선교본당, 교구 1위는 삼천포본당, 교구 특별상에는 칠원본당이 수상하였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로 신부님 및 평협 자문위원단 초청 간담 실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 베네딕토)에서는 매년 원로 사제와 전직 평협 회장들을 모시고 평협 발전을 위한 고견 청취와 간담을 통해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금년에도 지난 8월 5일, 시내 아라미당 식당에서 교구 내 원로사제와 평협 자문위원단을 초청하여 그간의 평협 활동 사항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보고해 드리는 동시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그분들이 지니고 계시는 경험에 따른 평협의 발전방향과 고언을 듣는 유익한 자리로서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다.

● 평협 주관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전개

제주평협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족한 영성을 채워나가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며, 본당 교우들 간에 결속력을 다져나간다는 목적으로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92일간 진행된다. 교구 내 28개 본당 전 교우들이 가톨릭굿뉴스 앱을 다운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10월 10일 현재 제주교구 참여 인원이 총 1,900여 명으로 복음 쓰기 전국 참여자의 20%를 넘기는

통계! 성령과 사랑을 베푸는 복음쓰기2달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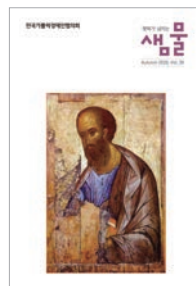
순위	교구	본당	참여자/단위수	총량
1	제주교구	동문성당	347명 (100%)	257,395+
2	제주교구	특별성당	320명 (100%)	257,627+
3	제주교구	팔남우성당	198명 (100%)	154,217+
4	제주교구	신재우성당	175명 (100%)	121,116+
5	제주교구	서귀포자성당	107명 (100%)	85,722+
6	제주교구	문명성당	112명 (100%)	86,777+
7	제주교구	학원성당	92명 (100%)	75,900+
8	제주교구	안동성당	79명 (100%)	57,164+
9	제주교구	김기영성당	69명 (100%)	41,793+
10	제주교구	중앙주교좌성당	54명 (100%)	41,476+
11	제주교구	삼천포성당	48명 (100%)	34,054+
12	제주교구	한림성당	40명 (100%)	31,306+

등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당별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들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이번 기회를 통해 본당 교우들 간에 유대 강화는 물론 결속력을 돈독히 다지는 매우 유익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전국 단위 상위 10순위 안에 제주교구가 5개 성당이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교구 내 본당 간 선의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보니 끝까지 순위 예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당 대항인 만큼 시상은 전체 1~3위는 교구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각 1백만 원, 70만 원, 50만 원이 주어지며, 개인인 경우는 룰렛에 의해 결정되긴 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 순위자 10명에게 5만 원권 상품권이 지급된다. 아울러 본 이벤트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전개함으로써 코로나 19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겠다.

전국가톨릭경제인회

● 2020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회보지 『평화가 넘치는 샘물』 발행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회장 윤대인 안드레아, 담당 사제 김한석 토마스 신부)는 2020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회보지 『평화가 넘치는 샘물』 4,000부를 발행하여 10월 7일, 협의회 산하 각 교구 경제인회와 전국 본당 및 수도회, 교회기관, 사회복지기관, 서울가톨릭 경제인회 회원들과 서울대교구 각 본당, 단체 등 모두 2,189곳에 3,887부를 발송하였다.

Editor's Letter 2020년 혼돈의 해

2020년은 전 세계의 인류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한 기쁨을 누리려는 시기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20세기 초 수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 이후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등장하였다. 우한에서 발견되어 Covid-19라 명명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해를 다 보내는 동안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으며 4천만 명이 넘는 환자와 백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아직도 무서운 기세로 팬데믹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미사 중단이라는 사태를 초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 미사마저도 참여할 수 없었고 이후 미사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엄격한 거리두기와 방역을 준수해야 하는 등 신자가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평화방송의 중계를 통한 미사 참여가 권고되고 신령성체를 허용하면서 다소나마 신자들의 공허함을 메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미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이해하면서 다시 과거와 같은 일상생활로 복귀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단체모임이나 회합 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자들의 방문을 통한 대면봉사로 크게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구나 본당들에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IT기술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고 있지 못하여 가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모임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새로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나와 당분간 지속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자의 유입이나 기존 신자들의 이탈을 막지 못해 교회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주교회의 의장단에서 진취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1년은 성인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탄생하신 지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희년으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특집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였다. 두 번째 특집은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한 작품 중에서 몇 편을 선별하여 싣고 있다. 이들은 모두 평신도들이 직접 작성한 글이면서 신자들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독하기를 권유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기를 기원해 본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이라는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 찬 한 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평신도 잡지는 항상 전국 신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작성하여 주면 영성에 도움이 되므로 독자들의 투고를 언제나 환영한다.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올림

“평신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평신도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내용은 현재 칼럼으로 연재되는 나의 신앙 선조, 주보성인과 나 등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영성체험 등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는 이미 내용이 풍부하여 사양합니다. 독자의 투고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 용지 1.5매 정도입니다. 별도로 본인의 얼굴사진과 본문과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고 연락처와 번호를 남겨주면 됩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예정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투고는 clack-hongbo@daum.net으로 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평신도 명예기자 명단(2020년 12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한은숙	막달레나	haneoun@naver.com
대전평단협	강현인	글라라	vingib@hanmail.net
인천평협	장영철	아우구스티노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의정부평협	김현채	바오로	prwsav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김미녀	리디아	oh-mn@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각장애훈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